

Ⅲ. 후삼국의 정립

1. 후삼국기의 신라
2. 후백제
3. 태봉

Ⅲ. 후삼국의 정립

1. 후삼국기의 신라

신라 분열의 機運은 사회적 혼란이 극치에 달했던 眞聖女王 때 표면으로 나타났다. 진성여왕의 〈讓位表〉에서 말해주듯이 돌이킬 수 없는 ‘疵國’¹⁾으로 변한 말기적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반란의 최초 봉기는 상주지방의 元宗과 哀奴에 의해 일어났다. 이들의 기세에 자극을 받은 지방세력가들이 각지에서 연이어 반란을 일으켰다. 즉 北原(원주)의 梁吉, 양길의 부하가 된 弓裔, 竹州(竹山)의 箕萱, 完山(全州)의 甄萱 등이 반란군의 대표적 두목이었다.

그 중 견훤과 궁예는 각기 백제와 고구려의 부흥을 외치면서 새로운 정권을 수립, 후백제(900)와 후고구려(901)가 등장하여 이로써 후삼국이 정립되었다. 이후 신라 景明王 2년(918) 궁예가 추방되고 申崇謙·洪儒·庾黔弼 등의 추대로 왕위에 오른 王建은 고려를 개창한 뒤 신라(935)와 후백제(936)를 차례로 통합, 한 민족체로의 실질적인 삼국통일이 이루어졌다.

이렇듯 후삼국이 존속한 시기는 불과 40년도 채 안되는 짧은 기간이었다. 후삼국기 신라의 왕은 孝恭王·神德王·경명왕·景哀王·敬順王이다. 효공왕의 즉위는 진성여왕 9년(895) 10월 왕이 조카인 曉(憲康王의 庶子)를 太子로 삼아, 왕이 죽기 전인 동왕 11년(897)에 禪位의 형식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다.²⁾

1) 徐居正, 《東文選》 권 43.

2) 太子책봉은 왕의 아들에게, 아들이 없을 경우 왕의 동생에게 하는 것이 상례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曉의 경우는 달랐다. 또한 曉의 즉위(효공왕; 당시 15세)는 왕이 죽기도 전에 왕위를 스스로 물려 준 예로 신라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三國史記》 권 11, 新羅本紀 11, 진성여왕 9년·11년). 그러면 진성여왕은 아들이 있었음에도(《三國遺事》 권 2, 紀異 2, 眞聖女大王 居陁知) 姪男 曉에게 선위코자 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이미 연구된 견해를 보면, ① 골

효공왕대의 시대상은 후백제·후고구려가 건국된 후 그들 세력이 날로 성장 확대되어 궁예의 세력은 죽령 동북지역까지 이르고, 견훤은 一善郡(선산) 이남의 10성을 공취하는 등 신라의 영토는 날로 줄어들어³⁾ 국력은 매우 미약했다. 당시 신라는 소백산맥 외각을 벗어나지 못한 경상도 지역만을 겨우 관장하는 소국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이러한 형편에 효공왕은 말년에 들어와 賤妾에 매혹되어 정사를 돌보지 않아 첩이 殷影에게 살해되는⁴⁾ 등 왕실의 권위와 체통은 회복이 불가능하였다.

그런데 효공왕은 재위 16년만에 후사가 없이 죽자 왕위는 父兼의 義子이며 현강왕의 사위(효공왕의 처남)인 朴景暉가 계승하였다. 신덕왕의 즉위는 8대 阿達羅의 遠孫으로 신라말 왕통의 변화를 갖는 커다란 사건이었다. 그의 즉위는 《三國史記》에 “國人에게 추대되어 즉위하였다”⁵⁾라고 하나 당시 왕위계승의 경쟁자로는 화랑출신으로 효공왕 때 侍中을 역임한 金孝宗⁶⁾을 들 수 있다.

품제적 원리에 따라 현강왕의 직계에 왕위를 계승코자 한 의도(李培鎔, 〈新羅下代の 王位繼承과 眞聖女王〉, 《千寬宇先生還曆紀念 韓國史學論叢》, 1985, 354쪽) ② 여왕의 자식에게는 왕위를 계승할 자격이 없다고 본 견해(李鍾旭, 〈新羅上代 王位繼承研究〉, 嶺南大 民族文化研究所, 1980, 157쪽) ③ 정치세력간의 대립과 타협의 결과로 본 견해(全基雄, 《羅末麗初의 文人知識層研究》, 釜山大 博士學位論文, 1993, 39~44쪽) 등이 있다. 필자는 그가 신하들에게 “근년 이래로 백성이 곤궁하고 도적이 봉기하니 이는 나의 부덕한 까닭이다”라고 밝힌 점(《三國史記》 권 11, 新羅本紀 11, 진성여왕 11년)이나 曠을 太子로 책봉하기 전해에 최치원이 왕에게 時務策 10여 조를 진언한 점, 그가 10번이나 왕위에서 물러날 뜻을 표한 사실(徐居正, 《東文選》 권 33, 謝嗣位表) 등을 고려하면 자신의 失政에 대한 책임, 즉 난제를 극복하기 어려운 자신의 능력에 한계를 느껴 선양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왕위를 曠에게 넘긴 것은 설혹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私通한 情夫 魏弘과의 관계(《三國遺事》 권 2, 紀異 2, 眞聖女大王 居陋知 참조) 등을 고려하면 자신과 왕실의 체통으로 보아 죽은 오라버니인 현강왕의 아들에게로 돌려줌이 순리요, 명분이었을 것으로 판단한 선위로 봄이 상식이 아닐까 싶다.

3) 《三國史記》 권 12, 新羅本紀 12, 효공왕 9년·11년·13년·14년 참조.

4) 《三國史記》 권 12, 新羅本紀 12, 효공왕 15년.

5) 《三國史記》 권 12, 新羅本紀 12, 신덕왕 즉위년조의 ‘國人’이란 나라 사람이란 뜻이나 실제로는 그를 지지하던 父兼·繼康·殷影 등의 집단으로 추대의 명분을 높이기 위하여 假託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6) 《三國史記》 권 12, 新羅本紀 12, 효공왕 6년. 景暉와 孝宗은 현강왕의 사위. 정치적 경륜이나 경제적·군사적인 면으로 보아도 화랑출신인 효종(《三國史記》 권 48, 列傳 8, 孝女知思 및 《三國遺事》 권 5, 孝善 9, 貧女養母條에 의하면 그

그런데 경희가 효종을 제치고 즉위된 배경은 곧 義父(父兼)의 정치적 배경과 효공왕 때 시중직에서 밀려난 繼康⁷⁾ 등이 당시 불만세력을 포섭하여 추대한 것으로 생각된다.⁸⁾ 그 사실은 신덕왕 원년(912) 5월 계강을 즉시 상대등으로 등용했다⁹⁾는 사실에서 짐작할 수 있다.

신덕왕은 즉위 원년 5월에 죽은 예점을 추존하여 宣聖大王이라 하고 아들 昇英을 태자로 삼았다. 이러한 사실은 곧 朴氏王統의 정통성을 사전에 대비하는 등 왕권을 강화하려 한듯 싶다. 그러나 그는 크게 한 일도 없이 후백제 견훤의 침입에 시달리다가 재위 6년 만에 죽자 태자 승영(경명왕)이 즉위했다.

경명왕은 왕권의 안정과 정통성 유지에 노력한 흔적이 돋보인다. 그는 즉위 원년(917) 8월에 同母弟 魏膺을 上大等으로 삼고 大阿湌 裕廉(효종의 조카이며 金傳 즉, 경순왕과는 堂弟間)을 侍中으로 등용했다. 이 점은 곧 왕권안정을 위한 김씨 세력과의 제휴가 아니었나 싶다. 그러나 동왕 2년 一吉湌 玄昇의 반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해 상대등(金成)과 시중(彦邕)을 새로 임명한 것을 보면¹⁰⁾ 왕권이 불안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당시 경명왕이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는 후백제 견훤의 침입에 대한 방어와 지방에 군림하는 호족세력들에 대한 회유책이었다. 이에 따라 고려에 사신을 파견(경명왕 4년; 920)하여 우호를 닦았다.¹¹⁾ 경명왕의 친고려책은 견훤을 자극시켜 920년 10월 견훤으로 하여금 步·騎兵 1만을 이끌고 大耶城을 공격·함락하고 進禮城으로 진격하게 하는¹²⁾ 등 신라 중심부를 향한 공격에 치중하도록 하였다.

이렇듯 견훤으로부터 시달림을 받은 경명왕은 阿湌 金律을 고려 태조에게 보내어 구원을 요청하였다(920년). 태조 왕건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 원병함으

는 1천여 명의 郎徒를 거느렸다)은 지위가 막강했던 인물이다.

7) 繼康은 효공왕 2년 정월에 侍中에 임명되어 동왕 6년 2월 大阿湌 孝宗이 侍中에 임명되면서 물러났다(《三國史記》 권 12, 新羅本紀 12, 효공왕 2년·6년).

8) 曹凡煥, 〈新羅末 朴氏王의 登場과 그 政治的 性格〉(《歷史學報》 129, 1991), 7~8쪽.

9) 《三國史記》 권 12, 新羅本紀 12, 신덕왕 원년.

10) 《三國史記》 권 12, 新羅本紀 12, 경명왕 2년·3년.

11) 《三國史記》 권 12, 新羅本紀 12, 경명왕 4년.

12) 《三國史記》 권 12, 新羅本紀 12, 경명왕 4년 및 권 50, 列傳 10, 甄萱.

로써 견훤은 후퇴하고 말았다. 이같은 왕건의 新羅軍援策은 후백제의 입장에서 보면 곧 고려와 신라와의 군사동맹을 뜻하는 결과가 되어 신라는 후백제로부터 무차별 공격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에 위기의식을 느낀 지방의 호족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편의에 따라 고려와 후백제로 귀부하는 자들이 속출하는 실정이었다.¹³⁾

이와 같은 사회적 혼란기에 즉위한 경애왕(魏膺; 경명왕의 弟)은 대외적으로는 前王의 뜻대로 즉위 원년(924)부터 고려 태조에게 사신을 보내는 등 화친책을 쓰면서 親高麗策을 폈다.¹⁴⁾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즉위 원년 10월 神宮에 친히 제사를 지내고 죄수들을 大赦했다. 한편 황룡사에서 百座說經을 說하고 겸하여 禪僧 300명에게 음식을 먹이고 친히 향을 피우고 불공을 드리는¹⁵⁾ 등 국민화합과 국내민안의 뜻을 펴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妃嬪과 宗戚들을 불러모아 鮑石亭에서 향연을 베풀고 놀다가 견훤의 침입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이 때 견훤은 효종의 아들 金傳를 왕(경순왕)으로 추대하고 왕의 동생 孝廉과 재상 英景을 포로로 붙잡아서 돌아갔다. 이리하여 3대에 걸친 朴氏王室은 단절되고 金氏王이 다시 등장하였다.

경순왕은 견훤에 의하여 왕위에 올랐으나 그는 견훤을 적대시하였고 고려 태조와는 친선책을 견지했다. 태조 왕건 역시 신라의 서울 金城을 방문, 수십일 동안 머물다가 갈 정도의 親新羅의 입장을 표했다. 이 때 신라인들로부터 “견훤이 왔을 때는 豺虎를 만난 것 같았으나 태조 왕건은 父母를 대함과 같다”¹⁶⁾는 칭송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신라의 민심은 점차 왕건에게로 쏠리게 되어 載巖城의 장군 善弼이 고려로 귀부하자 신라 동북지대의 永安(安東郡 豊山面)·河曲(안동군 임하면)·直明(안동군 일직면)·松生(청송군 청송면) 등 30여 군현이 연이어 귀부했다. 뒤이어 명주(강릉)로부터 興禮府(울산)에 이르는 동해연안의 110여 성이 다투어

13) 崔根泳, 《統一新羅時代의 地方勢力研究》(신서원, 1993), 106~107쪽, 〈표 15〉 참조.

14) 《三國史記》 권 12, 新羅本紀 12, 경애왕 원년·4년.

15) 《三國遺事》 권 2, 紀異 2, 景哀王.

16) 《三國史記》 권 12, 新羅本紀 12, 경순왕 5년.

고려에 투항하니¹⁷⁾ 신라는 경주를 중심으로 명목만을 유지하는 형편이었다. 이 때 금산사에 유폐되었던 견훤이 자진하여 고려에 귀부할 뜻을 표하여 그를 맞이한 왕건은 견훤을 尙父로 대우하고 楊州를 食邑으로 삼게 하는 등 융숭한 예우를 하였다(935년).¹⁸⁾

이렇듯 견훤의 고려 귀부로 왕건의 지위가 확고해지자 명목만을 유지하던 신라의 경순왕은 고려에 항복할 뜻을 결심하고 군신회의를 열어 그 가부를 물었다. 그 때 麻衣太子는 “나라의 존망에는 반드시 천명이 있으니 오직 忠臣과 義士와 더불어 민심을 수습하여 스스로 (나라를) 굳게 하다가 힘이 다한 후에 말 것인데 어찌 一千年社稷을 하루 아침에 쉽사리 남에게 내줄 것이랴”¹⁹⁾라는 반대 의견을 내었다.

이에 경순왕은 “외롭고 위태함이 이와 같은데 형세는 능히 온전할 수 없으니 이미 강하지도 못하고 또 약하지도 못한 이 형편에 무죄한 백성만을 참혹하게 죽게 하는 것은 내가 차마 하지 못하는 바라”는 명분을 들어 스스로 고려에 항복할 뜻을 결정짓고 시랑 金封休로 하여금 항복문서를 가지고 가서 왕건에게 귀부를 청하게 하였다(935년 11월).²⁰⁾

항복문서를 받은 왕건은 攝侍中 王鐵 등을 보내어 경순왕의 요청에 동의하는 뜻을 전하니 경순왕은 경주를 떠나(920년 11월) 태조 왕건에 귀의함으로써 신라는 고려에 통합되고 말았다.²¹⁾ 이로써 왕건은 신라의 전통과 권위를 이어받는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崔根泳〉

17) 《高麗史》권 1, 世家 1, 태조 13년 2월.

18) 《三國史記》권 50, 列傳 10, 甄萱.

19) 《三國史記》권 12, 新羅本紀 12, 경순왕 9년.

20) 위와 같음.

21) 왕건이 경순왕에 베푼 예우는 그가 개경에 당도하자 柳花宮에 머물게 하고 장녀 樂浪公主를 아내로 삼게 하였으며, 그를 封하여 政丞으로 임명, 1년에 祿俸 1천 석을 주고 神鸞宮을 지어주고, 신라국을 폐지하여 경주로 삼고 그 지역을 食邑으로 삼는 한편 그를 경주의 事審官으로 임명하였다(《三國史記》권 12, 新羅本紀 12, 경순왕 9년 및 《高麗史》권 2, 世家 2, 태조 18년 을미).

2. 후백제

1) 후백제의 성립

(1) 견훤의 출신과 군사적 기반

신라말에 후백제를 건국하여 옛 백제 지역을 지배했던 인물은 甄萱이다. 그러나 견훤의 출신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지금까지 ‘가난한 농민출신’이나 ‘농민의 아들’ 혹은 농민출신으로 농민반란군을 규합하여 성장한 인물’ 등으로 인식되어 왔다.¹⁾ 그러나 견훤이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후백제를 건국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견훤의 신분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견훤 아버지의 출신과 사회적 지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의 두 견훤전에 의하면 견훤의 아버지 阿慈介는 尙州 加恩縣 사람으로서 처음에는 농업으로 생활을 영위하다 후에 沙弗城을 중심으로 「將軍」이 되었다고 한다. 가은현은 지금의 聞慶郡 加恩邑이고 사불성은 지금의 尙州邑 일대를 가리킨다. 그렇다면 아자개는 처음에 가은현에서 농사를 짓다가 점차 동남쪽으로 이동하여 신라 9주의 하나였던 상주를 중심으로 장군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자개가 농사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가난한 농민층은 아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가난한 농민출신이 갑자기 「장군」 혹은 「城主」로 성장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토착적인 기반을 가

1) 다음과 같은 대부분의 한국사 개설서에서는 견훤을 가난한 농민출신으로 서술하고 있다.

韓祐勳, 《韓國通史》(乙酉文化社, 1970), 124쪽.

邊太燮, 《韓國史通論》(三英社, 1986), 148쪽.

朴龍雲, 《高麗時代史》上(一志社, 1985), 36쪽.

한편 李基白, 《韓國史新論》(一潮閣, 1976)에서도 ‘가난한 농민출신’이라 하였으나 최근에 나온 新修版(1991)에서는 ‘호족출신’으로 바로잡아 놓았다.

견훤의 출신에 대해서는 申虎澈, 《後百濟 甄萱政權研究》(一潮閣, 1993)에서 자세히 언급하였다. 아울러 이 글은 주로 이 책을 참고하여 서술하였으므로 구체적인 전거의 제시나 논증과정은 이 책을 참고하기 바란다.

지고 있던 부유한 농민층이었을 것이다. 그래야만 주변의 촌민들을 규합하여 장군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신라말 지방의 토착세력이 성을 쌓거나 혹은 기존의 성을 중심으로 스스로 성주나 장군으로 칭하면서 반독자적인 세력권을 형성해 가고 있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상주의 장군으로 성장한 아자개의 사회적 지위는 다음의 두 기록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① 갑오년에 尙州賊帥 阿字蓋가 사신을 보내 來附하였다. 왕이 의식을 갖추어 맞이하도록 명하니 毬庭에서 의식을 연습하고자 문무관이 다 班列에 나아갔는데…(《高麗史》권 1, 世家 1, 태조 원년 9월).

② 阿慈介의 第1妻는 上院夫人이고 제2처는 南院夫人이다. 5子 1女를 낳았는데 그 長子는 尙父 萱이요, 2子는 將軍 能哀, 3子는 將軍 龍盖, 4子는 寶盖, 5子는 將軍 小盖이고 1女는 大主刀金이다(《三國遺事》권 2, 紀異 2, 後百濟 甄萱).

①에 의하면 상주적수 아자개가 왕건 즉위 직후인 918년 7월에 고려에 내부하였고, 이 때 고려에서는 문무의 관리들을 모아 빈객으로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즉 아자개가 귀부하려 하자 고려에서는 대대적인 환영을 표시한 것이다. 이것은 아자개가 독자세력을 거느린 호족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에서 아자개가 상원부인과 남원부인 등 2명의 처를 두고 있었고, 그 아들을 모두 장군이라고 칭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²⁾ 한편 아자개는 李氏姓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한다.³⁾ 이상의 세 가지 점

2) 沙伐城 將軍 阿慈介와 尙州賊帥 阿字蓋가 동일인물이 아니라 同名異人이라거나(安鼎福, 《東史綱目》附卷上上), 또는 阿字蓋와 甄萱과는 父子之間도 아니며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 있다(金庠基, 〈甄萱의 家鄉에 대하여〉, 《東方史論叢》, 서울大 出版部, 1974, 199쪽). 그러나 阿慈介와 阿字蓋는 동일인물이 분명하다. 같은 지역, 같은 시기에 同名異人의 세력가가 2명 있었다는 것은 우연으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아울러 기록에 따라 ① 阿慈介(《三國史記》권 50, 列傳 10, 甄萱 및 《三國遺事》권 2, 紀異 2, 後百濟 甄萱), ② 阿慈蓋(《三國史記》권 12, 新羅本紀 12, 敬明왕 2년), ③ 阿字蓋(《高麗史》권 1, 世家 1, 태조), ④ 阿字介(《東史綱目》附卷上上)로 각각 차이가 있으나 이들 모두 甄萱의 아버지인 것에 대한 異記에 불과하다. 특별히 구별할 필요가 없을 경우를 제외하곤 모두 阿慈介로 통칭하였다.

3) 《三國遺事》권 2, 紀異 2, 後百濟 甄萱傳에 의하면 아자개는 본래 ‘李’씨였으나 후에 甄萱이 ‘甄’으로 성을 고쳤다고 한다.

만 보더라도 견훤의 아버지인 아자개는 가난한 농민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아마도 견훤은 선대부터 이미 부농층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그의 아자개대에 이르러서는 기존의 경제적 기반을 토대로 하여 한편으로는 이씨로 稱姓하면서 주변 촌민들의 지지를 얻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일족 및 주변 인물 등을 중심으로 사병적 성격의 군사세력을 규합해 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880년대 후반에 와서 사불성을 근거지로 하여 장군을 자칭할 만큼 일대 호족세력으로 성장해 갔던 것이다. 따라서 견훤 자신은 이미 가난한 농민출신이 아니라 상주지방의 豪族出身이라 해야 할 것이다.

견훤은 그 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군사적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을까. 상주호족이 된 아자개의 장남인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하기까지는 두 가지의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 하나는 견훤이 신라의 중앙군(京軍)이 되어 경주에 진출하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라 중앙군의 자격으로 서남해의防戍軍으로 파견되어 그 곳에서 방수군의裨將으로 출세하였다는 사실이다.

견훤이 신라의 중앙군으로 경주에 들어가게 된 것은 대체로 880년대의 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견훤은 景文王 7년(867)에 태어났으므로⁴⁾ 아자개가 장군을 자칭하던 때인 885년부터 888년까지는 견훤의 나이 20세 전후에 해당한다. 바로 이 시기에 견훤은 중앙군으로서 入京한 것으로 보인다. 신라의 중앙군이 된 견훤은 곧 서남해의 방수군으로 나아가 비장이라는 독립된 부대의 지휘관이 되었다. 그 곳에서 견훤은 자신의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견훤은 항상 전장에 나가 ‘枕戈待敵’ 하는 등, 그 용기가士卒보다 앞서 있었으며 은근히 반심을 품고 무리를 모았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신라에 대한 견훤의 태도를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그리하여 그가 반란을 일으키자 불과 한달 만에 무려 ‘5천의 무리’를 모았다고 한다. 이 ‘5천의 무리’는 견훤의 초기 군사적 배경이 된 핵심세력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5천에 달하는 군사는 어떤 성격을 가진 병력이었을까. 그리고 견훤은 어떻게 하여 이처럼 단기간에 대규모의 병력을 확보할 수 있었을까. 이러한 의문들은 견훤의 초기 군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4) 견훤의 出生에 대해서는 《三國遺事》견훤전에 ‘咸通八年 丁亥生’이라는 기록이 유일하다.

첫째, 견훤이 모았다고 한 ‘5천의 무리’ 속에는 견훤이 서남해 방수군의 비장으로 있을 때 그와 함께 ‘침과대적’하던 견훤 휘하의 병사들이 포함되었을 것이다. 그는 신라 중앙군으로서 서남해에 파견된 후 주변의 군인들에게 남다른 용기를 보였고 인심을 얻기 위해 부심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 방수군 이야말로 견훤을 따라 武珍州(光州)에 들어갔던 주된 병력이었을 것이다. 둘째, 서남해 일원에서 해상활동에 종사하던 海島 출신의 인물들도 견훤의 초기 군사적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견훤이 방수군으로 파견된 후 열심히 노력하여 비장이 된 곳은 바로 해상활동의 요지였다. 따라서 이 지역 일대의 해상 세력들은 자연 견훤의 세력에 흡수되었을 것이다. 그것은 후백제의 성립 초기부터 서해안 일대의 요충지역이 견훤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었던 점과 중국과의 외교에서 궁예나 왕건에 비해 견훤이 월등 앞서 있었던 점으로 보아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셋째, 견훤의 초기 군사적 배경 중에는 상주 출신의 견훤 先代의 사병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 숫자는 비록 많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들은 견훤 휘하의 방수군들과 마찬가지로 견훤의 측근으로 활동했던 핵심세력이었을 것이다. 끝으로 무진주 일대의 토착세력들도 견훤의 군사적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견훤이 처음 반란을 일으켜 무진주에 들어가자 가는 곳마다 메아리쳐 호응했다고 한 사람들은 바로 이 일대의 주민 등 토착세력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중에는 이미 농민 반란군에 끼어 「초적세력」을 형성하고 있다가 견훤군에 포함되기도 했을 것이고, 이 일대의 호족세력들도 점차 견훤의 군사적 기반으로 병합되어 갔을 것이다. 무진주 일대의 호족세력들은 이 곳이 점령된 후에 견훤군에 포함된 경우가 많았을 것이므로 견훤의 군사적 기반 중에는 맨 나중에 결합되었을 것이다.

(2) 후백제의 성립과정

견훤이 반란을 일으킨 후 (後)百濟國⁵⁾을 수립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구

5) 견훤이 칭한 정식 국호는 ‘후백제’가 아닌 ‘백제’였다. 《三國史記》의 찬자 등 후대의 사가들이 이전의 백제와 구별하기 위해서 ‘후’자를 붙인 것에 불과하다. 그것은 금석문 등 당시의 기록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체적인 기록은 없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두 견훤전 등 기존의 사료에 의하면 견훤이 반란을 일으킨 것과 후백제를 건국한 것이 마치 동시에 일어난 사건처럼 기술되어 있다.

① 唐昭宗 景福 원년(892)은 신라 진성왕 6년이다.…이에 견훤은 은근히 반심을 품고 무리를 모아 서울 西南州縣들을 진격하니 가는 곳마다 호응하여 그 무리가 한달 만에 5천 인에 달하였다. 드디어 무진주를 습격하여 스스로 왕이라 하였지만 아직 감히 공공연하게 왕이라고 칭하지 못하고 다만 ‘新羅西面都統指揮兵馬制置持節都督全武公等州行全州刺使兼禦史中丞上柱國漢南郡開國公食邑二千戶’라고 自署하였다(《三國史記》권 50, 列傳 10, 甄萱).

② 景福 원년(892) 후백제의 견훤이 자칭 왕이라 하였다(《三國史記》권 31, 年表 下).

③ 眞聖王 6년(892) 完山州賊 견훤이 완산주에 웅거하여 스스로 후백제라 칭했는데 武州의 동남쪽 郡縣이 항복했다(《三國史記》권 11, 新羅本紀 11, 진성왕 6년).

④ 壬子(892) 처음으로 光州에 도읍을 정하였다(《三國遺事》권 1, 王曆 1).

위의 4개의 기록은 후백제 건국과 관련된 각기 다른 사료이지만, 그러나 그 연대가 모두 892년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즉 ①에 의하면 진성여왕 6년(892)에 견훤이 반란을 일으켜 무진주를 점령하고는 공공연하게 稱王하지는 못하고, 대신 ‘新羅西面都統…漢南郡開國公食邑二千戶’라고 自署하였다고 전한다. 그런데 ②에 의하면 같은 해(892)에 후백제를 세우고 王을 자칭했다고 되어 있다. 한편 ③에 의하면 후백제라 칭한 곳이 完山州(全州)였다고 하였다. 반면 ④에서는 같은 해에 도읍을 정한 곳이 光州라고 하였다. 위의 네 기록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견훤은 892년 한 해에 경주의 西南州縣에서부터 반란을 일으켜서 점차 무리를 모으면서 이동하여 무진주를 점령하고 이어 완산주로 옮겨 도읍을 정한 셈이 된다. 그리고 광주에서는 아직 스스로 왕이라고 칭하지 못하고 ‘신라서면도통…」이라 자서한 단계였으며, 전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후백제왕이라 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후백제가 성립되기까지 이러한 과정만은 크게 보아 대체로 사실과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여러 과정이 모두 892년에 서로 혼재해

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견훤이 남몰래 반심을 품고 무리를 모아 서남 주현으로 나간 일, 무진주를 습격한 일, ‘신라서면도통…’이라 자서한 일, 梁吉에게 裨將職을 제수한 일, 西巡하여 완산주로 이동한 일, 도읍을 정한 일, 그리고 후백제를 세우고 칭왕한 일과 심지어 設官分職한 일까지 모두 892년에 일어난 것처럼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개설서를 비롯한 거의 모든 연구서에 견훤의 반란으로부터 후백제의 건국에 이르기까지의 사건이 모두 같은 해에 일어난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위의 사료들을 아무런 비판없이 모두 그대로 받아들인 데서 오는 오류이다.

견훤이 반란을 일으킨 후 후백제를 수립하기까지의 여러 단계는 10여 년에 걸치는 오랜 기간을 거쳐 이루어졌다. 견훤이 처음 반란을 일으킨 해는 적어도 889년 이전의 일이었으며, 889년에는 서남해 방수군을 이끌고 무진주에 들어갔다. 이 때 견훤은 아직 정식으로 왕이라 칭하지 못하고 다만 ‘신라서면도통…’이라고 하였다. 그 후 892년에 가서야 비로소 「백제국」을 세우고 칭왕하였으며, 900년에 이르러는 광주에서 전주로 천도하여 「立都・設官分職」 등 본격적인 국가체제를 정비하였던 것이다.

후백제가 수립되기까지의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⁶⁾

첫째, 지역적으로는 견훤이 서남해의 방수군으로 출발하여 경주의 서남 주현을 거쳐 광주 일대를 점령하였다. 광주에서 다시 내륙지역으로 북상하여 익산을 장악하고 전주로 이동하였으며, 이후 줄곧 전주를 도읍으로 해서 대내외적인 발전을 꾀하였다. 둘째, 정치적으로는 견훤이 처음 반란을 일으키고 나서는 스스로 왕이라 칭하지 못하고, 다만 ‘신라서면도통…’으로 자서하면서 신라의 지방관을 자임하였고, 그 후 군사력의 증강, 민심의 흡수 등으로 자신감이 생기자 ‘自王’의 단계로 발전하였고, 다시 전주천도 후에는 정식으로 후백제왕을 칭하게 되었다. 셋째, 시기적으로 보면 889년 이전에 견훤이 처음 반란을 일으켰으며, 889년에 광주를 점령하였는데 이 때는 ‘신라서면도통…’이라 자서하는 단계에 불과했다. 892년에 공공연하게 칭왕하였으며, 900년에 이르러 전주로 천도하고 본격적인 국가체제를 정비하였다.

6) 후백제 성립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증은 申虎澈, 앞의 책, 35~64쪽 참조.

2) 후백제의 발전과 호족연합

(1) 영토의 확대

견훤은 서남해 일대에서 반란을 일으킨 후 광주를 거쳐 점차 내륙지방으로 이동하여 전주에 천도하였다. 전주 천도 이후부터 견훤은 본격적인 영토확장을 위해 전투에 들어갔는데, 후백제의 영토확장은 크게 세 방향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그 하나는 후백제의 배후지역인 서남해 일대이고, 두번째는 고려와 접경지역인 한강 상류의 충청도 내륙지역이며, 세번째는 신라와 인접한 낙동강 이동의 경상도 지역이다.

후백제가 제일 먼저 공략에 나선 곳은 서남해 일대였다. 견훤이 전주에 천도한 직후인 901년 8월에 羅州(錦城) 남쪽의 10여 개 州縣을 공략하고 돌아왔다. 한편 궁예는 2년 후인 903년에 왕건으로 하여금 수군을 거느리게 하여 서해로부터 光州界에 이르러 나주를 공격하여 빼앗고 인근 10여 주현을 공략케 하였다고 한다.⁷⁾ 견훤의 후백제와 궁예의 후고구려가 처음으로 나주 일대에서 서로 대립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나주 일대는 이미 지척한 바와 같이 견훤의 초기 세력기반이 된 곳이었다. 견훤이 자신의 세력 근거지였던 나주 일대 10여 주현을 공략하게 된 것은 이 곳의 지방세력들이 이 때에 이르러 견훤을 이반했기 때문이었다. 즉 나주의 해상세력들이 왕건과 결합하여 후백제의 배후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주를 비롯한 서남해 일대의 해상세력들은 일찍부터 왕건세력과도 관련을 맺고 있었는데, 이 곳 토착세력들이 후백제 건국 후 견훤의 지배력이 강화되는데 대한 불만을 품고 이반하자 견훤이 제일 먼저 이곳을 공략한 것이다.⁸⁾ 이후 후백제는 서남해 일대의 제해권을 장악하기 위

7) 《高麗史》 권 1, 世家 1, 태조 즉위전(天復 3년).

8) 羅州를 비롯한 영산강 하구의 서남해 일대는 일찍부터 해상을 장악하고 있던 지방세력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었고 이들이 왕건의 선대세력과도 연관이 있었음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朴漢高, 〈羅州道大行臺考〉(《江原史學》 1, 1985).

文秀鎭, 〈高麗建國期の 羅州세력〉(《成大史林》 4, 1987).

해서 여러 차례 노력하였으나 이 곳 지방세력이 원래 강성하여 성공적이지는 못하였다. 나주 일대의 지방세력들은 견훤과 왕건의 사이에서 때로는 협력과 견제를 하면서 독자적인 지배권을 유지해 갔다. 신검에 의해 금산사에 유폐된 견훤은 금산사를 탈출하여 나주로 도망하였다. 나주에서 고려의 왕건에게 귀부의 뜻을 전하고 이어 해로를 통해 개경으로 들어갔다. 이처럼 나주의 지방세력들은 후백제의 건국 초기부터 멸망할 때까지 견훤과 왕건에게 있어 매우 특이한 존재였다.

다음으로 견훤은 충청도를 중심으로 한 중·북부지역의 공략에 나섰다. 후백제에서는 주로 경기도 남부지역인 廣州·唐城(남양)과, 충청 북부지역인 報恩·淸州·塊壤(괴산)·忠州 일대, 그리고 충청 중서부 지역인 運州(홍성)·熊州(공주)·燕岐 일대를 연결하는 지점을 영토확장의 주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이 곳은 남한강 상류와 금강 일대의 평야지대이자 호서와 호남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여 이 일대의 지배권을 확보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그러나 중부지역의 공략은 918년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주로 서남해의 제해권 장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곳의 정략에는 소홀하였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때까지만 해도 이 일대의 호족 세력이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곳에 대한 본격적인 공략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고려가 건국된 918년 무렵에는 중부 일대의 지방세력들 대부분은 견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수립하는 혼란한 상황에서 이 지역 호족에 대한 왕건의 영향력은 견훤의 그것에 비해 훨씬 약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호족들은 후백제와의 관계를 모색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 지역은 대체로 후백제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게 되었고, 고려에서는 중부지역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였다. 그러한 대책 중의 하나가 918년 8월 前侍中 金行濤를 東南道招討使知牙州諸軍事로 삼고,⁹⁾ 이어 일년 후인 919년 8월에는 烏山城을 고쳐 禮山縣으로 삼고 大相 袁宣·洪儒를

鄭淸柱, 《新羅末 高麗初 豪族研究》(全北大 博士學位論文, 1991), 167~217쪽.

李泰鎮, 〈金致陽亂의 性格〉(《韓國史研究》 17, 1977).

9) 《高麗史》 권 1, 世家 1, 태조 원년 8월.

보내 유민 500여 호를 安集시키게 한 일이다.¹⁰⁾ 925년 10월에는 유금필을 征西大將軍으로 삼아 후백제 영향권에 있던 燕山鎭과 任存郡을 공략케 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6개월 후인 926년 4월에는 견훤 자신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熊津으로 진군하였다. 그 결과 웅주·운주 등 충남 일대의 10여 개 주현 뿐 아니라 본래부터 공예의 강력한 세력권이었던 충북 일대까지 점차 후백제의 영향권 내에 들어가게 되었다. 물론 고려군의 반격이 부분적으로 있긴 하였지만, 대체적으로 昧谷縣(회인)·燕山鎭(문의)·三年城(보은) 등 청주에서 가까운 지역까지 견훤이 지배하게 되었다.

930년 이후에는 상황이 역전되어 후백제의 영향력은 크게 약화되었다.¹¹⁾ 그 해 8월 고려는 天安에 도독부를 설치하였고, 같은 달 왕건이 청주에 행차하여 羅城을 쌓음으로써 이 일대의 지배권 확보를 위해 그 전초기지를 마련하였다. 특히 932년 6월에 昧谷城의 성주이자 장군인 龔直이 고려에 귀부하였는데 이는 후백제에 커다란 타격을 준 사건이었다. 왜냐하면 공직은 일찍부터 견훤의 心腹이 된 인물이며 매곡성은 후백제의 가장 강력한 북방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곳이었기 때문이다.¹²⁾ 공직의 고려 귀부를 계기로 그 동안 후백제의 지배영역이었던 중북부 일대가 반대로 고려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공직이 귀부한 바로 다음달인 7월에는 왕건 자신이 一牟山城(문의)의 정벌에 나섰고, 이어 2년 후인 934년에는 웅주 이북의 30여 성이 스스로 귀부하였는데 이것은 공직의 귀부가 미친 직접적인 결과였다.

끝으로 견훤정부가 경상도 일대에서 지배권을 장악하고자 한 곳은 위로는 소백산맥을 중심으로 그 이남과 아래로는 낙동강의 하류에 이르는 지역이 그 대상이 되었다. 특히 尙州·古昌·義城·眞寶城·曹物城 등 경상 북부지역과 高鬱府·進禮郡·淸道 등 경주와 인접한 지역이 중심이 되고 있었다. 견훤은 특히 이 곳의 지배에 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었고, 따라서 이 곳에서의 전투는 앞의 두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전투 규모도 대부분 견

10) 《高麗史節要》권 1, 태조 2년 8월.

11)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은 930년 정월에 있었던 古昌전투이다.

12) 공직에 대해서는 申虎澈, 〈新羅末·高麗初 昧谷城 將軍 龔直〉(《湖西文化研究》 10, 忠北大, 1992) 참조.

훤이 직접 나서서 전투를 지휘하는 전력전의 양상을 띠고 있었다.

이 곳에서의 첫 전투는 상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견훤은 906년 처음으로 3천 명의 군사를 이끈 왕건과 沙火鎭에서 대결하였으나 패하였다. 이 때는 궁예가 개경에서 철원으로 환도한 지 1년 후였다. 그런데 당시 상주는 매우 특이한 곳이었다. 잘 알려진 사실로 진성여왕 3년(889) 沙伐州에서 元宗과 哀奴가 반란을 일으켜 전국적인 농민 봉기의 서단을 열었고, 견훤의 父인 아자개가 장군이 된 곳도 바로 사불성이었다. 이 곳은 鳥嶺과 竹嶺 등 소백산맥을 넘어 신라의 경주로 이어지는 길목으로 낙동강 상류 지역의 중심권이라 할 수 있는 곳이다. 따라서 이 곳을 지배하게 되면 고려와 신라와의 통로를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견훤은 일찍부터 상주·고창·의성 등 경상 북부지역을 지배하고자 하였다. 906년 상주에서 궁예정권과의 충돌은 바로 이와 같은 양국의 이해가 맞부딪친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그 후에도 경상 일대에서의 후백제와 고려의 대립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920년 10월 견훤은 직접 大良(陝川)·九史(초계)를 공취하고 이어 진례군으로 진격하였다. 이 때 그가 이끈 1만의 기병도 대단한 숫자이지만,¹³⁾ 특기할 만한 것은 이로 인해 신라가 고려에 처음으로 원병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이며, 신라와 고려가 서로 동맹을 맺고 후백제에 대항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이다. 이후에도 견훤은 자신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여러 차례 전투에 나섰다. 즉 924년 7월과 925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조물성을 공략한 것을 비롯, 925년 12월에는 거창 등 20여 성을 공취하였고, 이어 927년 9월에는 近品城과 경주와 근접한 高鬱府까지 쳐서 빼앗았다. 그리고 경주에 쳐들어가 경애왕을 죽이고 경순왕을 옹립하였다.

이 때 신라의 구원 요청을 받은 왕건이 원병을 이끌고 내려오다 견훤군과 公山桐蘆에서 대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곳 전투에서도 견훤군의 대승으로 끝났다. 고려의 장군 申崇謙과 金樂이 전사하였고 왕건은 單騎로 겨우 도망하여 살았다. 927년 11월에는 大木郡(若木)을 공취하였고 이어 벽진군을 공격하여 고려의 장군 索相이 전사하였다. 928년 5월에는 康州(晉州)를 습격하여

13) 견훤군의 통상 병력은 대개 2~3천 명이었다. 1만의 기병은 보통 병력의 4, 5배에 달하는 숫자였다.

장군 有文의 항복을 받았으며, 11월에는 오어곡성(군위)을 공격하여 고려군 1천 명을 죽이고 장군 陽志·明式 등 6인의 항복을 받았다. 929년에는 견훤이 갑병 5천 명을 거느리고 義城을 공격하여 洪術이 전사하였다. 이 때 왕건이 “나의 左右手를 잃었다”고 애통해 한 것을 보면 의성의 함락과 홍술의 전사가 고려에 커다란 타격을 준 사건임을 알 수 있다. 이어 견훤군은 順州城을 공격하였는데 장군 元奉은 도주하고 말았다. 그리고 929년 12월에는 고창군을 포위하였다. 이처럼 929년말까지 후백제와 고려와의 전투에서 후백제의 군사력은 고려의 그것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세는 갑자기 역전되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930년 정월의 古昌에서의 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견훤과 왕건이 직접 대결하여 견훤군의 패배로 끝났다. 후백제의 侍郎 金渥은 생포되고 8천여 명이 전사했으며 견훤은 패주하고 말았다. 고창전투의 패배로 말미암아 주변 호족들은 대거 왕건측으로 기울었다. 이를 계기로 永安(永川)·河谷(河陽)·直明(安東)·松生(青松) 등 30여 군현이 고려에 來降하였고,¹⁴⁾ 다음달인 2월에는 溟州(江陵)에서 興禮府(安東)에 이르기까지 110여 성이 고려에 항복하였다고 한다.¹⁵⁾ 고창전투의 영향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2) 호족과의 연합

견훤은 무력적인 정복 못지않게 지방 호족세력과의 연합을 위해 노력하였다. 견훤과 호족세력들과의 결합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하나가 호족과의 婚姻政策이었다.

견훤이 혼인정책을 통해 호족과 결합하였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는 기록은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삼국유사》 견훤전에 인용된 《古記》의 기록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고기》에는 광주 北村의 富人女와 紫衣男이 혼인했다고 하는 소위 ‘蚯蚓交婚說話’가 전해지는데, 이것은 견훤이 광주의 호족과 정략적으로 혼인한 사실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⁶⁾ 견훤이

14) 《高麗史節要》 권 1, 태조 13년 정월.

15) 《高麗史節要》 권 1, 태조 13년 2월.

16) 이 혼인설화에 대한 자세한 논급은 申虎澈, 앞의 책, 89~91쪽 참조.

서남해에서 반란을 일으킨 후 광주에 들어온 지 불과 한달 만에 5천여 명의 무리를 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광주호족과의 혼인을 통해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견훤이 혼인정책을 통하여 호족세력과 결합했을 것이라는 두 번째 근거로는 견훤의 사위가 모두 대호족세력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견훤의 사위로는 昇州의 장군인 朴英規와 武州의 성주인 池萱이 있는데 이들은 각각 승주와 무주의 호족세력이었다. 견훤은 자신뿐 아니라 자식들도 호족세력과 혼인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견훤의 혼인정책은 왕건의 혼인정책과도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끝으로 견훤의 혼인정책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로 견훤이 여러 명의 부인을 두고 있었고 자식도 십여 명이 있었다고 한 《삼국사기》 견훤전 기록을 들 수 있다.¹⁷⁾ 견훤이 여러 명의 부인(왕비)을 두고 있었고 그들 사이의 소생이 많이 있었던 것은 혼인을 통한 호족연합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견훤은 자신의 지배적 권위와 지방세력의 확보를 위하여 호족들과의 연계가 절실히 필요하였고, 그러한 수단으로 유력한 호족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이거나 아들을 사위로 맞이하는 혼인정책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견훤이 호족세력들과 결합해 가는 양상으로 혼인정책 외에 「歸附」의 형식을 통한 호족연합을 들 수 있다. 귀부호족의 문제는 후삼국기에 있어서 호족연합정권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귀부호족과 왕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논증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이 글에서는 이를 간단히 정리하는데 그치고자 한다.¹⁸⁾ 우선 지방의 호족들이 국왕들에게 귀부한 것은 후삼국기에 한정되었고 고려가 후삼국을 통합하고 난 후에는 귀부라는 형태를 가진 국왕과 호족들간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았다. 아울러 호족들의 귀부가 ‘지방세력의 견제책으로 국왕의 필요에 의하여 호족에게 강요된 사태’라기 보다는 호족들이 스스로 귀부의 대상을 선택·결정하였다. 때로는 호족이 귀부의 대상을 바꾸는 경우도 있었으며 중복된 귀부관계가 이루어지기도 하였

17) 《三國史記》견훤전에는 神劍·良劍·龍劍 및 金剛의 4형제를 제외하고는 견훤의 아들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이 없지만, 이 견훤전 이외의 다른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견훤의 자녀 이름이 18명이나 확인된다.

18) 귀부호족에 대해서는 申虎澈, 〈新羅末·高麗初 歸附豪族의 政治的 性格〉(《忠北史學》 8, 1995) 참조.

다. 따라서 국왕과 귀부호족과의 관계를 단순히 「군신적 상하관계」라고 하기는 어렵다. 비록 호족이 귀부를 통해 군신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상호의존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설명이다. 끝으로 후백제는 군사를 동원하여 호족세력을 정복하기도 하였다. 이 경우는 호족과의 연합이라기 보다는 통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주로 고려나 신라와의 접경지역에 해당되었다. 이들 정복지역의 호족이 귀부호족의 경우와 다른 점은 호혜적인 협조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상하관계라고 하는 점이다.

이상과 같이 견훤은 호족세력들과 혼인이나 귀부 혹은 정복 등의 방법을 통해 연합하였으며, 그러한 점에서 후백제의 성립은 호족연합정책의 결과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¹⁹⁾

3) 후백제의 대외정책

(1) 대신라정책

견훤은 처음 신라에 반기를 들고 일어나긴 했지만 신라왕조의 권위라든가 체제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못하였다. 견훤이 표면적으로 내세운 대신라정책은 궁예의 그것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궁예는 노골적으로 신라에 적대감을 표명하였다. 신라를 ‘滅都’라 부르게 하고 신라인으로서 귀부해 오는 자는 모두 죽이라고 했으며, 궁예 자신이 浮石寺에 있는 신라왕의 초상을 칼로 베어 반신라정책을 대내외적으로 표명한 사실은 유명하다. 그러나 견훤과 왕건은 신라에 대해 「尊王의 義」를 내세우고 있었다.²⁰⁾ 견훤은 광주를 점령한 후에도 王이라 칭하지 못하고 다만 ‘新羅西面都統’으로 자칭하고 있었다. 즉 견훤은 자신을 한낱 신라의 지방관임을 내세웠으며 전주로 천도한 900년 이

19) 호족연합정책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申虎澈, 〈後三國時代 豪族聯合政治〉(《韓國史上의 政治形態》, 一潮閣, 1993) 참조.

20) 견훤과 왕건 사이에 오고간 외교문서(이 문서는 후삼국간의 대외관계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료이다)에 의하면, 견훤과 왕건 모두가 다투어 신라에 대해 ‘尊王의 義’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결코 의례적인 修辭만은 아니었다.

후에도 대외적으로는 마찬가지였다. 견훤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고려와 신라를 위협하면서도 여전히 중국이나 일본과의 외교문서에는 신라 지방관의 지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견훤이 경주를 침공한 목적은 신라를 병합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고려와 결합하여 후백제에 대항하려던 경애왕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경애왕은 朴氏 왕으로서 김씨 왕족들의 도전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견훤은 박씨 왕을 제거하고 김씨 왕을 세운다는 대의명분을 내세워 경주침공의 사실을 정당화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박씨인 경애왕을 제거하고 대신 김씨인 경순왕을 옹립하였다.²¹⁾ 경순왕이 견훤에 의해 옹립되었으면서도 신라 왕실의 별다른 반발없이 왕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견훤의 대신라정책이 궁예의 그것처럼 적대적이었다고 해석한 종래의 견해는 재고되어야 한다. 오히려 견훤은 왕건과 마찬가지로 신라에 대해 「존왕의 의」를 내세우며 친신라정책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2) 대고려정책

견훤의 대고려정책은 시기에 따라 셋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왕건이 즉위하기 전까지이고, 둘째는 918년 고려 건국 직후부터 920년대 중반까지이며, 셋째는 920년대 후반 이후 936년 멸망할 때까지이다.

첫째 시기인 고려 건국 이전에는 주로 서남해안 일대에서 견훤과 왕건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특히 나주의 해상세력이 일찍부터 왕건과 결합하여 후백제에 이반했기 때문에 서남해안 일대가 후고구려의 지배하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고려 건국 직후 국내의 정치문제로 혼란해진 틈을 타서 후백제가 한 때 이 일대를 회복하였다. 하지만 930년 이후에는 후백제의 내분과 후백제군의 전력 약화로 인해 다시 나주 지방의 해상세력들은 고려에 귀부

21) 당시 견훤의 군사력이나 고려와의 관계로 보아 신라왕조를 멸망시켜 병합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견훤이 경순왕을 옹립하고 후백제로 돌아간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 사건은 견훤의 대신라정책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하여 왕건의 영향하에 놓이게 되었다.

둘째 시기인 고려 건국 직후부터 920년대 중반까지 후백제의 대고려정책은 대체로 친선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고려 건국 초기까지만 해도 견훤의 왕건에 대한 태도는 매우 우호적이었다. 견훤은 왕건의 즉위 소식을 듣고 一吉澣 閔閼을 고려에 보내 즉위를 축하해 주었고, 이어 920년 9월에는 아찬 功達을 보내 孔雀扇과 지리산 竹箭을 선물로 보내는 등 고려와의 친선외교에 노력하였다. 이처럼 견훤이 당시 군사적으로 크게 우세하였으면서도 오히려 고려와 友好관계를 맺고자 노력한 것은 신라와의 관계를 의식한 의도된 행동이었다. 즉 견훤이 고려에 사신을 보내 선물을 준 바로 다음달에 신라를 침공했는데, 그것은 견훤이 신라 침공을 앞두고 고려측을 무마하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이러한 고려에 대한 화친정책은 그 후에도 계속되어 924년 8월에는 왕건에게 驄馬를 선물하고, 다음해 10월에는 후백제와 고려간에 왕족을 인질로 교환하기까지 했다. 고려에서는 왕건의 동생인 王信이, 후백제에서는 견훤의 外甥 眞虎가 각각 인질로 보내졌다.

그러나 세번째 시기인 926년 이후에는 그 동안 비록 표면적이나마 유지되던 고려와의 우호관계는 깨지고 정면으로 대립하게 되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은 두 나라간에 교환된 인질의 죽음이었다. 926년 고려에 보냈던 진호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계기로 그 동안의 친선외교는 완전히 끝이 났다. 견훤은 고려측의 인질인 왕신을 죽이고 고려와 본격적으로 대결하게 되었다.²²⁾

견훤이 고려와 전면전을 벌인 초기에는 후백제측이 크게 유리하였다. 그러나 곧 내분으로 혼란해진데다 고창전투에서의 패배로 급격히 열세에 놓이게 되었다. 더구나 지방의 호족세력이 점차 견훤으로부터 이반하여 왕건에게 귀부하게 되자 더욱 불리해졌음은 이미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그리하여 930년 이후에는 전세가 역전되어 오히려 고려가 후백제를 압박하는 상황이 되었다.

22) 吳越王이 견훤에게 보낸 서신에서도 “卿(견훤)이 고려와 더불어 오랫동안 화호를 통하고 서로 隣盟을 맺었다는 것을 들었는데 근래 불모들이 다 죽으니 드디어 화친의 舊好를 잃고 서로 地境을 침략하여 전쟁이 그치지 않으므로…”라고 하였다. 따라서 후백제와 고려가 우호관계를 깨고 대결하게 된 중요 이유가 불모들의 죽음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대중국·일본정책

가. 대중국외교

후삼국기 중국과의 외교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당시 중국은 唐이 멸망한 후 五代의 혼란한 시기로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었다.²³⁾ 후삼국 중에서도 특히 견훤이 중국과의 외교에 적극적이었다. 후백제는 吳越과 後唐, 북쪽의 거란과도 외교관계를 맺고 있었다.

견훤은 특히 오월과 일찍부터 관계를 맺고 있었다. 견훤이 오월왕에게 사신을 파견한 것은 기록상으로는 900년이 처음이다.²⁴⁾ 900년은 후백제가 전주로 천도하여 본격적으로 국가체제를 정비하였던 해였다. 견훤이 이 때 오월에 사신을 파견한 것은 전주천도의 사실을 전하고 오월왕으로부터 이를 공인받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에 대해 오월왕은 보병사를 파견하여 견훤에게 ‘檢校大保’의 직을 제수하였다고 한다. 견훤의 지위가 중국으로부터 공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그런데 견훤이 오월에 사신을 파견한 것은 이 때가 처음은 아니었다. 그 전에도 이미 오월과 사신교환이 있었다. 900년 오월왕이 보병사를 보내면서 ‘검교대보의 직을 加授하고 다른 직은 전과 같이 하였다’라고 한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다. 견훤이 오월에 처음 사신을 파견한 것은 892년 경으로 추측된다. 견훤은 892년 광주에 도읍을 정하고 스스로 ‘신라서면도통...’이라고 했는데, 이 때 견훤은 오월왕으로부터 자신의 지위를 제수받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918년 8월에도 견훤은 오월에 사신을 보냈다.²⁵⁾ 그 목적은 당시 왕건

23) 신라말 고려초의 대중관계를 다룬 연구는 다음과 같다.

李基白, 〈高麗初期에 있어서의 五代와의 관계〉(《韓國文化研究院論叢》 1, 1960 ; 《高麗光宗研究》, 一潮閣, 1982).

金庠基, 〈新羅末에 있어서의 地方群雄의 對中통교〉(《黃義敦古稀紀念論叢》, 1960 ; 《東方史論叢》, 서울大 出版部, 1974).

金在滿, 〈五代와 後三國·高麗初期의 關係史〉(《大東文化研究》 17, 1983).

日野開三郎, 〈羅末三國의 鼎立と對大陸海上交通貿易〉(《朝鮮學報》 16・17・19・20, 1960・1961).

24) 《三國史記》 권 50, 列傳 10, 甄萱.

25) 위와 같음.

이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건국한 사정을 오월에 알리는 등 신생 고려와의 대중국 외교에서 우선권을 잡기 위한 조치였다고 생각된다. 한편 927년 12월에는 오월국의 사신 班尙書가 후백제에 와서 고려와의 화해를 요구하는 서신을 전달하였다. 이는 견훤이 신라를 침공하여 경애왕을 제거한 지 3개월 후의 일이었다. 따라서 오월왕의 서신은 후백제에게 매우 유리한 것이었고, 아마도 견훤측의 외교정책의 소산이라고 생각된다. 즉 견훤은 경주 침공 후 고려측의 반발을 오월왕의 서신을 통해 무마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²⁶⁾

이처럼 견훤은 일찍부터 오월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특히 892년의 무진주 도읍과 칭왕, 900년의 진주천도와 국가체제 정비, 918년의 고려 건국, 927년의 경주 침공과 경애왕 살해 등 국내외의 중요한 정치적 변수가 있을 때마다 오월과의 외교를 통해서 이를 해결하고자 했으며 나아가 자신의 지위를 공인받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한편 후백제는 후당과도 외교관계를 맺고 있었다. 후당과의 외교기록은 두 차례 보이는데, 925년 12월과 936년 정월에 각각 후당에 사신을 보낸 것으로 되어 있다.²⁷⁾ 기록상으로는 925년이 처음이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후당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었다. 892년 견훤이 무진주에 도읍을 정하면서 오월과 함께 후당에게도 사신을 보냈던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후당이 925년 견훤에게 사신을 보내 “檢校大尉兼侍中判百濟軍事의 관직을 제수하고 그 밖의 持節都督…食邑二千五百戶의 직은 이전과 같이 하였다”고 하였는데, 후당이 이전에 제수했다고 하는 ‘지절도독’운운의 직함은 견훤이 892년 자서했다고 한 직함과 그 내용이 같기 때문이다. 한편 936년 정월 후당에 사신을 파견한 것은 견훤을 내쫓고 왕위에 오른 신검이 한 일이었다. 신검정권에서 후

26) 이 때 吳越王이 견훤과 왕건에게 각각 사신을 파견하여 화해서신을 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오월왕은 견훤을 통하여 왕건에게 서신을 전달한 것이 옳다. 후백제·고려·오월 삼국간의 외교관계를 짐작케 해주는 중요한 대목이다.

27) 《三國史記》 권 50, 列傳 10, 甄萱
《冊府元龜》 권 972, 外臣部, 朝貢 5, 清泰 3년 정월
《五代史》 권 7, 後晉, 天福 원년 정월.

당에 사신을 보낸 목적은 후백제의 새로운 왕으로 즉위한 신검이 그 사실을 후당에 알리고 아울러 자신의 지위를 후당으로부터 공인받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후백제는 거란과도 외교관계를 맺고 있었다. 927년 거란왕은 裴姑·馬拙 등 35인의 사신을 후백제에 파견·來聘했다고 한다.²⁸⁾ 35인에 달하는 외교사절을 파견한 것으로 보아 거란에서는 후백제와 친선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전에 거란이 고려에 사신을 보내 낙타와 말 등을 바친 것과 같이²⁹⁾ 많은 물건을 보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처럼 견훤은 중국과의 외교에 매우 적극적이었으며 오월과의 외교가 그 중심이 되었다. 특히 오월이나 후당으로부터 자신의 지위를 인정받음으로써 국내에서의 권위를 강화하고 나아가 후삼국간의 관계에서도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고 생각된다. 결국 후백제의 대중국정책은 정치·외교적인 목적이 강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나. 대일본외교

후백제는 일본과도 외교관계를 맺고자 노력하였다.³⁰⁾ 그런데 일본과의 외교기록은 국내의 사서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일본측 기록에만 보인다.

견훤이 일본에 사신을 파견한 것은 922년 6월이 처음이었다. 견훤은 사신 輝嚴(函)으로 하여금 書狀과 信物을 갖고 대마도에 도착케 하여 일본정부와 통상할 것을 원하였다. 이에 대마도의 島司는 이 사실을 京都에 보고했으나, 경도에서는 견훤이 신라의 신하(陪臣)라 하여 사사로운 외교를 거절하고 다만 식량을 주어 돌려보냈다 한다.³¹⁾ 그런데 이 때 견훤이 파견한 사신을 ‘新羅人到來’라고 표현한 것이라든지, 견훤을 ‘新羅 陪臣’이라 한 것이라든지, 견훤에 보내는 서첩을 ‘答新羅返牒’이라 한 것을 보면 당시 일본에서는 견훤을

28) 《三國史記》 권 50, 列傳 10, 甄萱.

29) 《高麗史》 권 1, 世家 1, 태조 5년 2월.

30) 후백제와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中村榮孝, 〈後百濟王および高麗太祖の日本通使〉(《日鮮關係史の研究》上, 吉川弘文館, 1965) 참조.

31) 《扶桑略記》 권 24, 裡書, 延喜 22년 6월 5일
《本朝文粹》 권 12, 牒 答新羅返牒.

신라의 지방관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견훤을 ‘都統甄萱’이라 칭한 것으로 보면 견훤 스스로가 신라의 지방관을 자처했을 가능성이 크다. 견훤은 이미 892년에 스스로 ‘신라서면도통...’이라 하였고 이후 오월과 후당과의 외교에서도 이러한 직함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음은 이미 지적한 바다.

7년 후인 929년 정월에는 耽羅와 해초를 교역하던 후백제의 상선이 대마도의 下縣郡에 표류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때 對馬島守 坂上經國은 通社長 峯望通과 檢非違使 秦滋景 등 사절을 파견하여 이들 후백제의 표류민들을 全州에 데려다 주고³²⁾ 견훤을 만나 島守의 書狀을 전하였다. 비록 京都정부에서는 견훤과의 통상을 거절했지만 대마도에서는 견훤과의 통상을 원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 도수의 사절단은 그 해 3월 25일 대마도에 도착하였다. 이들이 귀환하여 견훤을 “全州王 甄萱이 數十州를 격파하여 大王이라고 칭하고 있다”라고 보고하였다. 이들 대마도수가 파견한 사절이 견훤을 만난 때는 견훤이 신라를 침공하고 이어 왕건을 公山桐蔭에서 대파하여 한창 그 세력이 강성하던 때였다.

그런데 견훤은 대마도 사신이 돌아간 뒤 바로 같은 해 5월 17일 張彦澄으로 하여금 20인의 사절단을 이끌고 대마도에 도착하여 표류민 송환에 대한 답례와 아울러 경도정부와의 통상을 바라는 書狀을 전하였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앞서 922년 輝巖을 보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유를 들어 후백제와의 통상을 사절하고 이들 견훤의 사신들에게는 식량을 주어 귀국케 하였다.³³⁾

이처럼 견훤은 일본과의 외교에도 노력을 기울여 두 차례에 걸쳐 사신을 파견하는 등 일본정부와 관계를 맺고자 하였으나 신라와의 관계를 고려한 일본측의 소극적인 자세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견훤이 일본과의 외교에 매우 적극적이었던 사실은 견훤의 대외인식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주목할 만하다고 하겠다. 견훤이 일본과 통교를 맺고자 한 것은 정치적·외교적 목적보다는 이들과의 해상무역이 더 큰 관심이었을 것이다.

32) 《扶桑略記》권 24, 醍醐天皇 下, 延長 7년 5월 17일. 대마도 사신이 후백제인을 데리고 金州에 도착했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金州는 全州의 誤記라고 생각된다.

33) 《扶桑略記》권 24, 醍醐天皇 下, 延長 7년 5월 21일.

4) 후백제의 몰락

(1) 신검 형제의 정변

후백제는 군사적인 면에서 고려와 신라를 압도하고 있었고 대외정책적인 면에서도 오월이나 후당과의 외교를 통해 그 지위를 인정받는 등 유리한 국면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930년 정월 고창전투에서 왕건군에게 패한 후 전세는 역전되어 급격히 쇠퇴하였고 주변의 호족들도 다투어 후백제를 이반함에 따라 마침내 멸망하게 되었다. 이처럼 갑자기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후백제의 정치적 혼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삼국사기》 견훤전에 의하면 그 정치적 혼란은 견훤 자식들간에 있었던 왕위쟁탈전에서 비롯된 것으로 되어 있다. 견훤은 여러 아들 중 넷째인 金剛을 사랑한 나머지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자, 이에 長子인 神劍과 2·3子인 良劍·龍劍이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 때 양검과 용검은 각각 강주와 무주에 도둑으로 나가 있었는데 伊絜 能絜이 이들과 함께 정변을 일으켜 4子인 금강을 죽이고 견훤을 金山佛宇에 유폐시킨 후 신검을 왕위에 추대하였다.

그러나 금산사에 유폐되어 있던 견훤은 3개월 만에 탈출하여 고려 왕건에게 투항하였고, 이어 후백제 내에 있던 견훤의 사위 박영규도 이에 내용하여 왕건에게 귀순하였다. 견훤과 박영규의 도움을 얻게 된 고려측은 936년 신검군과 황산에서 결전을 벌여 승리하였다. 신검·양검·용검 3형제는 항복하였고 곧 후백제는 멸망하였다.

이처럼 후백제 멸망의 결정적인 원인은 신검 3형제와 금강 사이의 왕위쟁탈전을 둘러싼 내분에서 비롯되었고, 거기에 견훤과 朴英規가 고려에 투항함으로써 급진전된 셈이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후백제 멸망의 원인이 충분히 설명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견훤이 금강을 편애한 데서 온 형제간의 알력에만 초점을 둔 지극히 단편적이고 평면적인 설명에 불과할 뿐 견훤이 금강을 편애한 이유, 즉 왕위를 물려 주고자 한 이유에 대

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다. 신검·양검·용검의 3형제를 제쳐두고 금강이 건훤의 후계자로 등장한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야말로 후백제의 지배세력을 둘러싼 권력쟁탈전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약 반세기 동안이나 존속하였던 후백제의 지배세력은 다양하고 복잡한 정치집단들로 구성되었을 것이고, 그들간에 권력의 핵심을 둘러싸고 상호 대립과 투쟁이 끊이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신검 3형제와 금강간의 싸움도 다만 건훤의 금강에 대한 편애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이들 형제를 둘러싼 서로 다른 정치 지배세력의 존재라든가 그 세력을 구성하였던 인물들간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후백제 내의 이러한 대립은 이미 930년의 고창전투 이전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후백제는 930년 이전까지만 하여도 전라·충청 전지역과 경상 북부일대를 지배하에 두면서 신라와 고려를 크게 압박하고 있었다. 즉 927년에는 신라의 경주를 침공하여 경애왕을 폐위시키고 대신 경순왕을 옹립하여 건훤의 괴뢰 정부를 수립하였고 이에 반발하는 고려를 公山桐蘄에서 대파시킴으로써 왕건은 겨우 單騎로 도망하였던 것이다. 그 후에는 후백제가 보은·회인·청주·공주·홍성 등 충청 일대와 합천·초계·의성·약목·벽진·거창 등 낙동강 일대를 지배하에 두게 되었다. 그러나 930년 정월 고창전투에서 패배한 후에는 경상 일대에서는 영천·하양·안동·청송 등 30여 군현을, 충청 일대에서는 청주·보은·홍성 등 공주 이북의 30여 성을 고려가 지배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1, 2년 만에 갑자기 이루어진 변화였다.

이처럼 930년을 고비로 하여 갑자기 상황이 역전된 이유를 단순히 고창전투의 패배라고 하는 군사적인 측면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며, 그 이유는 후백제의 내분으로 여겨진다. 후백제의 내분은 930년을 전후하여 비롯되었으며 그것이 정변으로 표출된 것이 935년으로 생각된다. 《삼국유사》 건훤전에는 건훤과 신검 형제들간에 대고려전의 대립을 암시해 주고 있는 기록이 보인다. 즉 건훤이 왕건에게 귀부할 의사를 비치자, 신검·양검·용검 3형제가 모두 이에 불응하였다는 것이 그것이다.³⁴⁾ 한편 신검이 정변을 일으킨 후에 발표한 「敎書」에 의하면 건훤이 초기에는

“뛰어난 무용과 지모로 그 功業이 거의 중흥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智慮가 一失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갑자기 ‘智慮一失’ 하게 된 이면에는 “간신이 권세를 농락하여 (견훤을) 昏暗과 迷惑에 빠지게 하였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견훤이 갑자기 ‘지려일실’ 했다고 하는 것은 930년 이후의 상황을 말하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권세를 농락하던 소위 간신들이란 바로 금강을 왕위에 추대하고자 한 세력이었음이 분명하다. 이들이 당시 전투에 나가 활약하던 신검을 비롯하여 양검·용검의 3형제를 제쳐두고 나이 어린 금강을 내세워 견훤의 후계자로 내세웠던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신검 형제로 하여금 불만을 초래하게 하였고 결국 정변을 일으키게 한 것이다.

금강이 왕위에 추대된 이유를 《삼국사기》 견훤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즉 “넋째 아들 금강은 키가 크고 智略이 많아 견훤이 특별히 그를 사랑하여 왕위를 전해 주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의 실정을 옳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금강은 당시까지만 해도 어린아이에 불과했다. 신검이 935년 반란을 일으킨 후 즉위하여 내린 敎書에 의하면 금강을 가리켜 ‘幼子’ 또는 ‘頑童’으로 표현하였다. 그런데 신검정변이 있기 10여 년전인 924년에는 신검과 양검은 曹物城전투에서 직접 군사를 이끌고 전투를 지휘하고 있었고, 또 양검과 용검은 군사요충지인 康州(진주)와 武州(광주)의 도독으로 나가 있었다.³⁴⁾ 이들 3형제의 나이는 적어도 20세 정도는 되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보다 12년 후인 935년 10월 금강을 ‘幼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연소한 어린아이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신검 3형제와 금강은 적어도 20년 정도의 나이차가 있었다고 생각되며, 금강이 키가 크고 지략이 많아 그를 왕위에 추대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구실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 좋을 것이다.

금강이 왕위에 추대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견훤에게 여러 명의 부인과 자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견훤은 광주

34) 이러한 내용은 《三國史記》 견훤전에만 보이고, 《三國遺事》 견훤전이나 《高麗史》 등에는 보이지 않는다.

35) 《三國史記》 권 50, 列傳 10, 甄萱.
《高麗史》 권 1, 世家 1, 태조 7년 7월.

와 전주에서 지방 호족세력과 결합하기 위해 정책적인 통혼을 했고, 그 결과 후백제 내에는 여러 외척세력이 존재했을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결국 신검·양검·용검 3형제와 금강은 서로 母系를 달리하는 이복형제간이며, 신검 3형제와 금강간의 왕위쟁탈전도 이들 두 외척집단간의 대립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신검 3형제와 금강이 이복형제였을 것이라는 점은 신검 3형제는 모두 성장한 어른이었던 데 비해 금강은 이들과 20년 정도 나이차가 있었다는 사실과, 신검 3형제와 금강이 그들의 이름에서도 차이가 나는 점에서 알 수 있다.³⁶⁾ 신검·양검·용검은 모두 후백제 초기 즉 광주정부 시절에 출생한 아들이었던 데 비하여 금강은 전주로 천도한 후에 새로 맞아들인 부인의 소생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신검 3형제의 외척세력은 광주정부 시절 건훤이 맞아들였던 ‘光州 北村의 富人女’의 집안으로 여겨지며, 금강의 외척세력은 전주천도 후 그 곳 지방세력과 결합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혼인한 전주 일대의 호족세력으로 추측된다.

특히 신검 3형제가 반란을 일으킨 이유는 신검이 반란을 일으킨 직후에 내린 교서 속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중 건훤의 업적을 평가한 부분이 특히 주목된다. 즉 건훤이 초기에는 무용과 지모가 특출하여 백제를 크게 중흥시키게 되었는데 후에 가서는 간사한 신하들이 권세를 잡고 건훤을 昏暗과 迷惑에 빠뜨렸기 때문에 갑자기 금강을 총애하여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적은 후백제의 정치적 추이와 비교해 볼 때 대체로 사실과 부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지적한 대로 후백제는 930년 이전까지는 군사적으로 크게 우세하여 고려와 신라전에서 계속 승리하였고 주변의 호족세력들도 다투어 후백제에 내속되고 있었다. 교서에서 “백제를 중흥시키는 공업을 이룩하였다”고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930년 고창전투의 패배 이후 전세는 역전되어 갔는데, 그 이유를 위의 교서에서는 건훤이 주위의 세력들에 의해 혼암과

36) 신검·양검·용검은 모두 ‘劍’자가 들어 있어 후백제 초기 고려군과의 전투에 참여했던 자신들의 활동과 관련이 있는 데 비하여, 金剛은 불교적 색채가 강한 이름을 갖고 있다. 이는 건훤 말기 건훤의 불교사상과도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 한다.

미혹에 빠진 때문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어린아이에 불과하였던 금강에게 키가 크고 지력이 많아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다는 것은 구실에 지나지 않으며, 새로이 정권을 장악하게 된 금강의 외척세력—신검의 교서에 의하면 ‘권세를 농락한 간신’들—이 그를 옹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신검과 금강과의 대립은 신검 3형제를 중심으로 한 그의 외척세력과 930년 이후 새롭게 대두된 정치세력, 즉 금강의 외척세력간의 권력쟁탈전이었다고 하겠다.

(2) 신검정권과 그 멸망

신검은 정변을 일으켜 왕위에 오른 후 자신을 추대했던 세력들을 중심으로 정치개혁을 통해 새로운 지배체제를 확립하고자 노력했다. 신검이 추구했던 정치개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왕위에 오른 후 境內에 내렸다고 하는 그의 교서를 통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교서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전반부에서는 대체로 신검 자신이 정변을 일으켜 왕위에 오른 것에 대한 변명 내지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후반부에서는 신검이 왕위에 오른 후 새로운 정치질서를 위해 「유신정치(維新之政)」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표명하고 있다. 즉 정치개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그 유신정치의 내용에는 경내의 죄수들을 「大赦」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왜 이 때 교서를 발표하여 유신정치를 표방하고 죄수들을 사면하였을까. 신검의 죄수에 대한 사면이 왕의 즉위년에 일반적으로 시행되던 의례적인 조치였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즉 교서의 공포와 죄수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조치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신검은 정변을 일으켜 왕위에 오르긴 했지만 견훤을 따르던 세력과 금강을 추대했던 정치세력들의 반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견훤이 금산사를 탈출하여 고려에 귀부한 사건을 들 수 있다. 견훤의 고려 귀부는 신검정권에게는 커다란 타격이었을 것이다. 견훤의 고려 귀부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도 물론 큰 것이겠지만, 이를 계기로 금강을 추대했던 반신검계세력들이 신검정권에 반발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일찍부터 견훤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었던 지방 호

족세력들의 반발도 신검정권을 불안하게 했다.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昇州의 호족세력으로서 일찍부터 견훤의 사위가 되었던 朴英規의 고려 귀부를 들 수 있다. 박영규가 고려에 귀부한 것은 신검정권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부인에게 한 말 중, “忠臣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만약 우리 임금을 버리고 賊子를 섬긴다면 무슨 낮으로 천하의 義士를 대하겠는가”라고 한 것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나주지역의 호족들도 신검정권에 반발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나주는 신검정변 이전 6, 7년 동안은 후백제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정변 직후에 고려의 유급필에 의해 장악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신라 왕실의 태도 또한 신검정권을 불안하게 하였다. 견훤이 고려에 귀부하자 경순왕 또한 왕건에게 귀부하기 위해 侍郎 金封休를 보내 상황을 타진하고 있었다.³⁷⁾ 이처럼 견훤의 고려 귀부와 신라 왕실 또한 고려에 기울게 되자, 이로 인한 금강 추대세력 및 지방 호족세력들의 반발에 직면하게 되어 신검은 이들 반대세력들을 회유하기 위해 ‘유신정치’를 표방하고 죄수들에 대한 대사면 조치를 단행하였던 것이다.

한편 신검정권에서는 중국에 사신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신검은 교서를 발표한 지 2개월 후인 936년 정월에 후당에 사신을 파견하여 方物を 바쳤다고 한다.³⁸⁾ 신검이 후당에 사신을 파견한 것은 후백제의 정권교체 사실을 알리고 자신의 지위를 공인받음으로써 국내에서의 정치적 혼란을 외교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이처럼 신검정권은 내적으로는 유신정치를 표방하여 정치개혁을 단행하고, 대외적으로는 중국과의 외교를 추진하였지만 사태는 극히 불리하였다. 경순왕은 이미 935년 11월 고려에 귀부하였고, 다음해 정월에는 승주의 호족이자 견훤의 사위인 박영규도 왕건에 귀부하고 말았다. 이 때 이미 대세가 왕건측으로 기울어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936년 9월 고려의 왕건은 귀부해 온 견훤을 앞세워 후백제를 멸망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정복전을 시작하였다.

37) 《三國史記》 권 12, 新羅本紀 12, 경순왕 9년 10월.

38) 《冊府元龜》 권 972, 外臣部, 朝貢 5, 清泰 3년 정월.

《舊五代史》 권 7, 天福 원년 정월.

고려측의 병력은 8만 7천 5백 명으로 통상병력에 비해 엄청난 규모로서 全軍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신검정권에서도 전력을 다하여 대항하였다. 그러나 이미 견훤과 박영규가 고려군에 가세한 상황에서 신검군의 패전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반세기 동안 지속되었던 후백제는 몰락하고 말았다.

〈申虎澈〉

3. 태 봉

1) 궁예의 출신과 사회적 진출¹⁾

《三國史記》권 50, 列傳 10, 弓裔傳을 보면 궁예는 憲安王 혹은 景文王의 아들이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는 태어나자마자 부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하였으나 乳婢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한다.²⁾ 이 점에서 궁예는 신라의 왕자 출신으로 아마도 정권다툼에 희생된 인물이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³⁾ 하지만 궁예의 가계에 대한 서로 다른 설이 있다는 점, 그가 구사일생 하게 된 경위가 지나치게 극적이라는 점 등을 염두에 두면 그가 과연 왕자였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⁴⁾

1) 이하의 서술은 趙仁成, 《泰封의 弓裔政權 研究》(西江大 博士學位論文, 1991), 7~30쪽에 주로 의지하였다.

2) 이 점과 관련된 자료는 《三國史記》권 50, 列傳 10, 弓裔傳과 권 11, 新羅本紀 11, 진성여왕조에 실려 있다.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앞으로 이 자료에 나오는 기사를 인용할 경우에는 진거를 밝히지 않겠다.

3) 李基白, 《韓國史新論(新修版)》(一潮閣, 1991), 142쪽. 궁예가 현안왕과 경문왕 중 누구의 아들인가를 밝히려는 연구로는 申虎澈, 〈弓裔의 政治의 性格—특히 佛敎와의 關係를 中心으로—〉(《韓國學報》29, 1982), 33~36쪽과 鄭清柱, 〈弓裔와 豪族勢力〉(《全北史學》10, 全北大, 1986), 2~7쪽 등을 들 수 있다.

4) 洪淳祜, 〈變革期の 政治와 宗教—後三國時代를 中心으로—〉(《人文研究》2, 嶺南大, 1982), 227~228쪽.

崔圭成, 〈弓裔政權의 性格과 國號의 變更〉(《論文集》19, 祥明女大, 1987), 289~290쪽.

궁예와 더불어 후삼국시대를 이끌었던 甄萱은 眞興王의 5대손이었다고 하고,⁵⁾ 王建의 시조 虎景은 聖骨將軍을 칭하였다고 한다.⁶⁾ 하지만 그들 누구도 실제로 신라 왕실과 혈연이 닿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궁예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그러하지 않았지만, 신라 왕실과의 혈연상의 연결을 도모하였다고 여겨 좋지 않을까. 단 견훤이나 왕건이 자신들을 중고시대 신라 왕실의 먼 후손으로 꾸뻐던 점에 비해 궁예만이 바로 앞 시대의 왕들과 자신을 연결시켰으리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호족 출신이었던 견훤이나 왕건과는 달리 궁예가 중앙의 유력한 가문 출신이었음을 시사한다고 믿어진다. 왕실을 제외하고 중앙의 유력한 가문을 생각한다면 眞骨貴族의 가문을 떠올리게 된다. 이에 궁예가 진골귀족 출신이었을 것으로 본다.

진골귀족 출신이었다고 하여도 궁예가 성장하였던 곳은 경주가 아닌 듯하다. 그는 낙향한 진골귀족이었던 셈이다. 한편 궁예가 비록 낙향한 진골귀족이었을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리고 어려서부터 장성할 때까지 승려였다고는 하지만, 호족세력이나 사원세력 등을 배경으로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가령 승려생활을 그만두고 竹州(安城·龍仁)의 세력가 箕萱의 부하가 되었던 궁예는 기원으로부터 푸대접을 받았으며, 그로 말미암아 우울하여 스스로 안정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만약 궁예가 호족세력이나 사원세력 등을 이끌고 있었거나 그들로부터 후원을 받았다면 기원이 그를 푸대접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궁예로서도 기원이 자신을 무시하였다고 하여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이에 궁예의 가문은 이미 몰락하였던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진골귀족 가문의 몰락이 정치적 사건과 무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의 가문은 아마 정권의 장악을 둘러싸고 벌어진 진골귀족들 사이의 투쟁에서 패함으로써 몰락하게 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처럼 궁예가 정권 다툼에서 패배하여 몰락한 진골귀족 출신이었다면 그는 자연 반신라적인 성향을 지니게 되었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 그는 몰락하지 않았다면 누릴 수 있었을 진골귀족으로서의 특권과 권위를 회복하려고 하는 집념을 품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궁예는 일찍부터 신라를 타

5) 《三國遺事》 권 2, 紀異 2, 後百濟 甄萱條에 인용된 《李碑家記》.

6) 《高麗史》, 高麗世系에 인용된 金寬毅의 《編年通錄》.

도하고 자신이 지배하는 새로운 국가의 건설을 꿈꾸었을 것으로 헤아려지는 것이다.⁷⁾

궁예는 소년시절 寧越의 世達寺⁸⁾에 출가함으로써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다. 잘 알려진 바이지만 건국 후 궁예는 彌勒佛을 자칭하였다. 뿐만 아니라 20여 권의 경전을 저술하고 강설도 하였다고 한다. 그 경전이나 강설의 내용은 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궁예가 미륵불을 자칭하였다면 적어도 거기에는 자신이 하생한 미륵불이며, 자신의 치세가 미륵불이 하생한 이상세계임을 주장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을 것이다. 궁예가 그러한 내용의 경전을 쓰고, 강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불교 전반 특히 미륵신앙에 대하여 정통하였기에 가능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궁예가 세달사에서 승려생활을 하였던 사실과 떼어놓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궁예의 미륵신앙과 관련하여 그보다 약 50년 정도 앞서 활동하였던 세달사의 승려 調信이 溟州에서 미륵신앙과 관련을 맺었음이 주목된다.⁹⁾ 洛山寺의 觀音菩薩像 앞에서 金昕의 딸과 맺어지기를 기원하였던 조신은 꿈에서나마 소원을 이루었다고 한다. 하지만 가난에 시달리다가 15세 된 큰 아들이 굶어 죽자 명주 蟹縣嶺에 묻었다고 한다. 꿈에서 깨어난 조신이 그 곳을 파보니 돌미륵이 나와 그것을 인근의 절에 안치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승려 궁예의 활동 범위는 영월을 중심으로 하여 太白山脈을 넘어 동해안에까지 미치고 있었던 것 같다. 궁예는 北原(原州)의 세력이 梁吉의 명에 따라 북원의 동부지역과 酒泉(寧越)·奈城(영월)·鬱烏(平昌)·御珍(蔚珍) 등을 비롯한 명주 관내의 여러 군현을 정복하였던 일이 있다. 이처럼 양길이 궁예에게 위의 여러 지역의 정복을 맡겼던 이유 중의 하나는 그가 그 곳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듯하다. 그렇다면 조신의 예에서 보듯이 궁예도 명주에서 미륵신앙을 접하게 되었던 것은 아닐까 추측하게 된다.

통일신라시대의 미륵신앙은 크게 太賢系와 眞表系로 나누어 파악되고 있

7) 鄭淸柱, 앞의 글, 28~29쪽 참고.

8) 세달사의 위치에 대해서는 申虎澈, 앞의 글, 37쪽 및 鄭淸柱, 위의 글, 8쪽 참조.

9) 조신에 대해서는 《三國遺事》권 3, 塔像 4,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條 참조.

다.¹⁰⁾ 그 중 진표는 명주에서 戒法을 설하고, 金剛山에 鉢淵藪를 열고 7년 동안 거주하였다¹¹⁾. 그 때 그는 흉년으로 인하여 굶주렸던 명주 일대의 백성들을 구제하였다고 한다. 주민들은 진표가 설한 계법을 저마다 받들었고, 그로 인해 굶어 죽을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때 발연수를 떠났던 진표는 그 만년을 다시 발연수에서 지냈다. 이러한 사실들은 명주 일대의 주민들을 상대로 한 진표의 교화가 대체로 성공적이었을 것이라는 점, 진표 이후에도 명주 지역에는 그의 미륵신앙이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알려 준다. 그렇다면 궁예가 명주에서 접하였을 미륵신앙은 진표 이래의 그것이었음직하다.¹²⁾

진표는 미륵보살로부터 그의 빠로 된 簡子를 받았으며, 미륵보살은 그가 現身의 육체를 버리고 大國王의 몸을 받으리라고 예언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진표가 미륵보살의 대행자로 현세에서 이상국가를 만들려고 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¹³⁾ 그런데 이 진표의 소망에는 종교적 혹은 정신적으로 百濟를 부활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으며, 그가 미륵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반신라적 이상국가의 건설을 꿈꾸었다는 지적이 주목된다.¹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궁예는 신라를 타도하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 점에서 궁예와 진표의 희망은, 현실과 종교라는 차이는 있지만, 서로 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한편 진표의 미륵신앙은 주로 지방의 농민들 사이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¹⁵⁾

10) 金南允, 〈新羅 中代 法相宗의 成立과 信仰〉(《韓國史論》 11, 서울대, 1984), 141~146쪽.

11) 이하 진표의 행적에 대해서는 《三國遺事》 권 4, 義解 5, 關東楓岳鉢淵藪石記條에 의거함.

12) 궁예와 진표의 미륵신앙을 연결시켜 이해하였던 논자는 李基白이었다(〈眞表의 彌勒信仰〉, 《新羅思想史研究》, 一潮閣, 1986, 274~276쪽. 특히 274쪽의 주 16 참조). 한편 궁예를 태현계 미륵신앙과 관련짓는 견해도 있다(金杜珍, 〈高麗 初의 法相宗과 그 思想〉, 《韓沽勸博士停年紀念 史學論叢》, 知識産業社, 1981; 〈性相融會思想 成立의 思想的 背景—高麗初의 法相宗과 그 思想—〉, 《均如華嚴思想研究》, 一潮閣, 1983, 117~118쪽).

13) 李基白, 위의 책, 271쪽.

14) 李基白, 위의 책, 274~276쪽.

15) 金南允, 앞의 글, 135·147쪽.

李基白, 위의 책, 272~273쪽.

궁예가 호족세력이나 사원세력의 후원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그렇다면 궁예는 진표의 미륵신앙을 이용하여 반신라적인 농민들을 자신의 세력으로 끌어들이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였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를 통해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던 것은 아닐까. 궁예는 이미 대국왕이자 미륵불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궁예가 승려생활에 언제까지나 만족하고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壯年이 된 후 궁예는 僧律에 구애받지 않았으며, 기상이 활발하고 膽氣가 있었다고 전한다. 이러한 그의 면모는 일반 승려의 그것과 크게 다르거니와, 이는 이제 궁예가 현실의 정치적·사회적 상황에 보다 관심을 갖게 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891년 궁예는 드디어 세달사를 떠나 기훤에게 투신하였다. 전국 각지에서 대두하고 있었던 호족들이나 眞聖女王 3년(889)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되었던 농민봉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었던 신라정부를 보면서 궁예는 신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려는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판단하였던 듯하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호족세력이나 사원세력으로부터 이렇다 할 후원을 받을 수 없었을 궁예로서는 우선 기훤과 같은 기왕의 세력가에 의지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만들어 가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기훤의 푸대접을 받았던 궁예가 그 밑에서 자신의 세력을 모을 수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궁예가 그러한 기회를 얻었던 것은 892년 기훤을 떠나 양길의 부하가 된 이후였다고 여겨진다. 양길의 명에 따라 성공적으로 정복활동을 수행하였던 궁예는 양길의 신임을 얻었던 것이다. 하지만 궁예가 양길의 부장으로 만족할 수 없었을 것임은 물론이다.

궁예는 894년 6백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북원으로부터 명주에 들어갔다. 이는 양길의 명에 따른 것일 터이지만, 그 때 궁예가 將軍을 자칭하였다는 사실이 눈길을 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신라 하대에는 대호족들이 장군을 자칭하였다. 그렇다면 궁예는 양길로부터 얻은 병력을 기반으로 하여 독립을 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후고구려의 건국¹⁶⁾

(1) 자립과 세력기반의 확립—하층농민의 포섭

명주에 들어간 궁예는 3천 5백 명의 병력을 확보하였다. 그는 그들을 14 隊로 나누고 舍上(部長)을 두었으며, 사졸들에 의해 장군에 추대되었다¹⁷⁾. 궁예가 명주에 들어갈 당시 6백여 명을 이끌고 있었으므로 그는 명주에서 거의 2천 9백 명에 이르는 병력을 모았던 셈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부대의 체제를 정비하고 지휘권을 확립하였다. 이에 궁예가 명주에 머무는 동안 즉 894년 10월부터 895년 8월 이전에 자립하였다고 본다.¹⁸⁾

궁예가 명주에서 자립할 수 있었던 것과 관련하여 먼저 許越이 주목된다. 태조 왕건은 溟州將軍 金順式을 회유하기 위하여 內院의 승려였던 그의 아버지 허월을 보냈다.¹⁹⁾ 왕건은 즉위 후 얼마 되지 않은 918년 8월에 각지의 호족들에게 사신을 파견하여 그들을 포섭하려고 한 일이 있었으며, 허월이 파견된 것도 대략 그 때쯤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김순식은 태조에게 불복하다가 태조 5년(922)이 되어서야 비로소 「귀부」하였다. 궁예가 자립하였던 곳이 바로 명주라는 점을 고려하면 궁예가 몰락한 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태조가 허월을 파견하여 회유를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왕건에게 불복하였던 김순식은 궁예세력이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²⁰⁾ 그리고 허월 역시 그러하였음직하다.

16) 이하의 서술은 주로 趙仁成, 〈弓裔의 勢力形成과 建國〉(《震檀學報》 75, 1993)에 의거하였다.

17) 궁예의 건국과정에 대한 자료는 《三國史記》 권 50, 列傳 10, 弓裔·권 11 新羅本紀 11, 진성여왕·권 12, 新羅本紀 12, 효공왕 및 《高麗史》 권 1, 世家 1,太祖 卽位前條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이들 사료를 인용할 경우 그 전거를 밝히지 않을 것이다.

18) 궁예는 895년 8월에 鐵圓(鐵原)을 비롯한 溟山州 일대를 점령하였으므로, 그가 명주를 떠난 것은 그 이전일 것이다. 한편 궁예가 명주에서 자립하였음은 이미 지적된 바이다(金杜珍, 〈新羅下代 嶺山門의 形成과 思想〉, 《省谷論叢》 17, 省谷文化財團, 1986, 314쪽).

19) 이하 허월과 김순식에 대해서는 《高麗史》 권 92, 列傳 5, 王順式傳 참조.

20) 金杜珍, 앞의 글(1986), 315쪽. 특히 주 59 참조.

왕건이 즉위한 후 얼마 되지 않은 918년 8월 무렵 허월이 내원의 승려였다면 그 내원은 궁예정권 이래의 것으로 여겨 온당할 듯하다. 그리고 허월은 이미 궁예가 집권하였을 당시부터 내원에 소속된 승려였을 것이다. 그런데 내원은 궁궐 안의 사원을 가리킬 것이므로 허월이 내원의 승려였었다는 것은 그가 궁예의 측근이었음을 말하여 준다. 나아가서 허월이 궁예가 명주를 떠날 때 함께 행동하였던 것으로 헤아려 보게도 된다.²¹⁾ 허월이 명주 출신이었고, 궁예가 자립하였던 곳이 바로 명주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궁예가 명주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인물은 바로 허월이 아닐까.

허월이 승려였다는 사실은 자연 신라말 명주 일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崛山門을 떠올리게 한다. 즉 허월이 본래 굴산문의 승려였을 것으로 짐작되거니와, 여기서 특히 889년 개조 梵日이 사망한 후 명주의 굴산사에 남아 있다가 같은 지역의 普賢山寺에서 활동하였던 開淸이 주목된다. 그는 신라 왕실은 물론 태조 왕건에 대해서도 비협조적이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개칭 역시 궁예세력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²²⁾

한편 金敬信(元聖王)과의 왕위계승전에서 패배한 金周元이 명주에 퇴거한 이래 그 후손들이 명주 일대를 장악하고 있었음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다. 궁예가 명주에서 자립할 수 있었던 것은 굴산문의 도움 외에도 김주원계 대호족의 협조 내지는 그들과의 타협 속에서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김주원계 대호족은 신라 왕실에 대해 대항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을 법하다. 이 점 궁예와 통한다.²³⁾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미 명주 일대에 확고한 기반을 갖고 있었던 그들이 아직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지 못했던 궁예와 굳이 손잡을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여기서 다시 허월과 개칭이 떠오른다.

흔히 허월과 그의 아들 김순식을 명주에 토착한 김주원의 후손이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김순식이 명주장군을 칭한 대호족이었다면 그가 김주원이나 명주에 토착한 김주원의 후손과 무관할 수 없었으리라는 점에

21) 金甲童, 〈羅末麗初 地方勢力의 動向〉(《羅末麗初의 豪族과 社會變動研究》, 高麗大 出版部, 1990), 68쪽.

22) 金杜珍, 앞의 글(1986), 315~319쪽 참고.

23) 鄭淸柱, 앞의 글, 29쪽.

근거한 추정이다. 그러나 양자가 혈연적으로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듯하다. 다만 김순식의 가문은 본래 진골귀족에 속하였으나 늦어도 허월대에는 명주에 낙향하였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²⁴⁾ 개청도 그 선대에 낙향한 진골귀족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김주원 가문과 혈연적으로 관련이 있었던 것은 아닌 듯하다.

허월과 개칭이 김주원과 혈연이 닿지 않았으리라는 점에서 명주에서의 그들의 지위는 김주원계 대호족 휘하의 중소호족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²⁵⁾ 그러한 처지였다면 그들은 기회가 생기는 대로 그들 가문의 지위를 높이려고 하였을 것이다. 이에 허월과 개청은 궁예와의 결합을 통해 명주 일대에서 그들의 지배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던 것은 아닐까 하는 짐작을 하게 된다. 그들은 궁예의 출현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을 것으로 여겨지는 김주원계 대호족의 협조를 끌어냄으로써 궁예가 명주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고, 그 과정에서 중소호족이었던 허월의 아들 김순식이 김주원계를 대신하여 대호족으로 등장할 수 있었을 것으로 헤아려보는 것이다.

궁예가 명주에서 확보하였던 약 2천 9백명에 달하는 병력의 대부분은 본래 그 지역의 농민들이었을 것이다. 농민들이라고는 하지만 자영농보다는 열악한 경제적 처지에 놓여 있었고, 따라서 흉년이 들기라도 하면 쉽게 유이민이나 도적이 되기도 하고 혹은 봉기에 가담하기도 하였던 佃戶라든가 품팔이꾼 등²⁶⁾ 하층농민들이 주로 궁예에게 호응하였을 것이다. 명주 일대의 도적이거나 889년 이래의 봉기에 참여하였던 농민들이 궁예의 세력에 편입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단 궁예가 사상(부장)으로 삼았던 金大 등은 자영농 출신이었을지하다. 그들이 사상에 임명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식견이나 능력이 다른 자들에 비해 뛰어났음을 일러 준다. 자영농이 전호나 품팔이꾼

24) 이와 관련하여서는 金貞淑, 〈金周元世系の 成立과 그 變遷〉(《白山學報》 28, 1984), 190~191쪽 참고.

25) 尹熙勉에 의하면 대호족은 자기의 세력 범위 내에 있는 여러 중소호족들을 지배하였을 것이라고 한다(尹熙勉, 〈新羅下代の 城主・將軍〉, 《韓國史研究》 39, 1982, 65쪽).

26) 洪承基, 〈後三國의 分열과 王建에 의한 통일〉(《韓國史市民講座》 5, 一潮閣, 1989), 62~63쪽.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만큼 식견이나 능력 면에서도 역시 그러하였으리라고 짐작된다.²⁷⁾

궁예에게 가담하였던 농민들이 대체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다면, 그들은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불만을 강하게 갖고 있었을 것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궁예는 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의 해소를 약속하고 또 그를 위해 노력하였을 것이다.²⁸⁾ 여기서 다시 진표의 미륵신앙에 눈을 돌려보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진표는 흉년으로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명주지역의 주민들을 구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다고 하여 그들 모두가 한결같이 심각한 위기를 맞았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진표의 도움으로 곤궁함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주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의 농민들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당시 진표는 특히 하층농민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것이다.

하층농민들이 기근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진표가 설한 계법을 받들고, 三寶를 지극히 공경한 결과였다고 되어 있다.²⁹⁾ 진표가 계율을 매우 중요시하였음은 널리 알려진 바이거니와, 그것은 그가 地藏菩薩과 占察法會를 중요시하였던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다.³⁰⁾ 진표가 점찰법회를 열었던 일차적인 목적은 점찰과 참회를 통해 戒를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점찰법회는 지장보살이 五濁惡世의 末世衆生을 위하여 설하였다는 《占察善惡業報經》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다.³¹⁾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진표는 당시를 말세로 여겼음직하다.³²⁾ 그리고 진표의 포교 이래 명주 일대의 하층농민들도 역

27) 洪承基, 위의 글, 65~66쪽.

28) 洪承基, 위의 글, 68~69쪽.

29) 《三國遺事》 권 4, 義解 5, 關東楓岳鉢淵薺石記.

30) 이하 진표의 말세의식과 그 영향에 대해서는 趙仁成, 〈新羅末 農民反亂의 背景에 대한 一試論—農民들의 世界觀과 關聯하여—〉(《新羅末 高麗初의 政治·社會變動》, 신서원, 1994), 19~21쪽 및 27~29쪽 참조.

31) 金煥泰, 〈新羅占察法會와 眞表의 敎法研究〉(《佛敎學報》 9, 1972), 105~107쪽. 지장보살은 석가가 입적한 후 미륵불이 출현하기까지의 말법시대인 無佛세계에 나타나 천상에서 지옥까지의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이라고 한다(金南允, 앞의 글, 139쪽).

32) 金南允, 위의 글, 143쪽.

시 그러하였음직하다. 한편 수취가 가중되면 될수록 그리하여 생활이 어려워지면 질수록 하층농민들의 말세의식은 보다 깊어져 갔을 것이다. 진성여왕 3년(899) 정부의 「貢賦」 독촉에 반발하여 전국적으로 농민들이 봉기하였음을 떠올리면 궁예가 명주에 들어갔을 무렵 그 일대 하층농민들의 말세의식은 상당히 심화되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진표가 궁극적으로 추구하였던 것은 미륵신앙이었다. 점찰과 참회의 계법을 통하여 진표는 신라를 미륵불의 下生을 바라기에 적합한 불국토화하려는 뜻을 갖고 있었다거나³³⁾ 혹은 이 지상에 미륵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이상국가를 건설할 것을 꿈꾸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³⁴⁾ 미륵불은 본래 인간들이 말세의 상태를 반성하고 선심을 일으킴으로써 수명이 8만 4천세에 이르는 이상세계가 실현되었을 때 하생한다고 되어 있지만, 말법세계를 구제할 수 있는 것은 當來佛로서의 미륵불의 하생뿐이라고 믿어지기도 하였다.³⁵⁾ 그렇다면 궁예가 명주에 들어갔을 무렵 그 일대의 하층농민들은 미륵불이 하생하는 이상세계의 도래를 대망하고 있었음직하다.³⁶⁾

이미 살펴보았듯이 궁예는 이미 승려 시절 진표의 미륵신앙에 정통하였고, 그가 그것을 미륵신앙에 접하였던 곳이 바로 명주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궁예는 명주의 하층농민들에게 미륵불이 하생하는 이상세계의 실현을 내세움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가령 궁예는 사졸들과 더불어 동고동락하고 상벌을 공정히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33) 蔡印幻, 〈新羅 眞表律師研究 2—占察의 戒義와 方法—〉(《佛教學報》24, 1987), 62쪽.

34) 李基白, 앞의 책(1986), 273~274쪽. 한편 진표의 미륵신앙을 미륵상생신앙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金南允, 앞의 글, 136쪽).

35) 金三龍, 〈總說〉(《韓國彌勒信仰의 研究》, 同和出版公社, 1983), 64~65쪽.

36) 신라 中古期에 원광에 의해 점찰법회가 열렸었다. 그런데 그것은 말법 도래의 위기감에서 비롯되었으며, 그에 따라 미륵불에 가탁된 이상세계의 건설에 대한 갈망이 고조되어 花郎을 미륵의 화신으로 여기게 되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李基東, 〈新羅 花郎徒 研究의 現段階〉, 《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上, 1994, 一潮閣, 168~169쪽). 여기서 말세의식과 미륵신앙이 연결되는 또다른 예를 찾을 수 있다. 단 중고기의 말세의식—미륵신앙과 진표 이래 하대의 그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인다. 언뜻 생각하여도 전자가 체제유지적인 성격의 것인 반면 후자는 오히려 반체제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신망을 얻어 장군에 추대되었다고 한다. 궁예가 사졸들과 즐거움은 물론이고 피로움과 수고로움을 함께 하여 사졸들이 그를 사랑하였다는 것은 그가 내세운 미륵불 하생의 이상세계가 평등한 인간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세상이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상벌을 공정히 하여 사졸들이 궁예를 두려워하였다는 것은 그가 엄한 軍律을 제정하였으며 사졸들은 그것을 준수하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이는 진표의 미륵신앙에서 게을이 중요시되었던 것과 서로 통하는 면은 없는 것일까.

앞서 궁예의 자립에는 허월과 개청 등 굴산문 승려들의 도움이 있었으리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허월은 물론 개청을 비롯한 다른 승려들도 궁예가 미륵불 하생의 이상세계의 실현을 내세우면서 하층농민들을 포섭하는 데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³⁷⁾

명주를 떠난 궁예는 895년 8월까지 鐵圓(鐵原) 일대를 장악하였고, 그 다음 해인 896년 철원에 도읍하였다.³⁸⁾ 궁예가 나라를 열고 왕이라고 칭할 만하다고 하여 내외의 관직을 설치하였던 것은 896년 철원에서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궁예는 896년 철원에서 세력기반을 확립하였다고 본다.

궁예가 건국의 태세를 갖추 수 있었던 것은 휘하에 많은 병력을 거느리고 있었고, 溟西지역의 호족들이 많이 귀부하였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 중 먼저 손꼽아야 할 것은 역시 궁예가 많은 병력을 확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강력하였다는 점일 것이다. 패서호족들이 궁예에게 귀부하였던 이유 중

37) 이와 관련하여 굴산문의 개조인 범일이 진표의 미륵신앙과 무관하지 않았으리라는 지적이 참고된다(金南允, 앞의 글, 146쪽). 한편 필자는 앞의 글(1993), 18~19쪽에서 崔彦擣가 940년 찬술한 <地藏禪院朗圓大師悟眞塔碑>(《朝鮮金石總覽》上, 朝鮮總督府, 1919)를 인용하면서 개청이 “굴산사를 떠나 보현산사에 옮겨 간 후 그 이름을 地藏禪院이라고 바꾸었다”고 하고, 거기에는 “지장보살의 역할을 자임하면서 말세의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개청의 뜻이 담겨져 있을 것”이라고 풀이하여 그가 미륵신앙을 내세우면서 하층농민들을 포섭하려고 했던 궁예에게 협조하였을 것으로 보았다. 비문에 따르면 개청이 보현산사에서 입적하였다고 하므로 그가 보현산사의 이름을 지장선원으로 바꾸었다고 한 것은 잘못이다. 아마 그의 생전부터 보현산사는 지장선원으로 불리웠을 것으로 여겨진다. 단 그러하더라도 그것은 개청이 지장보살을 중요시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비명의 제목에서 엿볼 수 있듯이 지장선원이 공식적인 명칭으로 생각된다는 점도 고려할 일이다.

38) 《三國遺事》 권 1, 王曆 1, 後高麗 弓裔.

의 하나가 바로 궁예와의 무력 대결을 피하려고 한 때문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궁예의 건국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궁예와 패서호족들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잠시 미루어 두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당시 궁예가 확보하고 있었던 병력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궁예가 패서호족들이 귀부할 정도로 많고 강한 병력을 갖게 되었던 것은 철원 등을 점령한 후였다. 그는 기왕에 확보한 병력에 더하여 철원 등 점령지의 주민들을 대거 자신의 병력으로 흡수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궁예는 철원을 비롯한 점령지역과 별 연고가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궁예가 이들 지역을 무력으로 차지하였다는 것에서 명주와는 사정이 다를 수 있다. 그렇다면 궁예는 어떻게 병력을 늘릴 수 있었던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865년 철원 到彼岸寺의 鐵造毘盧遮那佛像이 만들어진 경위가 주목된다.³⁹⁾ 그에 따르면 香徒들은 釋迦가 입적한 후 「三十(千)光」이 비치지 않은 지가 1806년이 되었음을 슬퍼하여 불상을 조성하였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석가가 입적한 후 正法 5백년(혹은 천년), 像法 천년이 지나면 말법의 시대 곧 말세가 온다고 한다. 향도들이 당시를 하필 석가가 입적한 해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1806년이 되었다고 하였음은 곧 그들이 당시를 말세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그런데 도피안사의 향도들은 주로 철원 일대의 호족들과 자영농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한 처지의 향도들이 말세의식을 갖고 있었다면 하층농민들은 더욱 그러하였을 것이다. 그들은 흉년이라도 들면 굶주림에 시달리거나 유이민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였던 것이다. 여기서 진표의 점찰법회가 그의 생전에는 물론 사후에도 전국의 여러 지방에서 행하여졌으리라는 점, 그 포교 대상도 주로 하층농민들이었으리라는 점 따위를 떠올리게 된다. 그렇다면 철원 일대의 하층농민들도 명주의 그들과 마찬가지로 진표의 포교 이래 말세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미륵불이 하생하는 이상세계의 도래를 대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⁴⁰⁾ 그리고 궁

39) <到彼岸寺毘盧遮那佛造像記> (《譯註 韓國古代金石文》3, 韓國古代社會研究所, 1992), 314~315쪽.

40) 도피안사 향도들은 말세를 벗어나기 위해 비로자나불상을 만들었지만, 철원 일대의 하층농민들은 미륵불의 하생을 기대하였을 것으로 헤아려진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의 여지가 있다(趙仁成, 앞의 글, 1994, 16쪽, 주 17).

예는 명주에서처럼 그러한 세상의 도래를 내세우면서 그 일대의 하층농민들을 포섭함으로써 많은 병력을 보유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한편 신라 하대에 석가의 입적을 기준으로 하여 佛紀를 적었던 다른 예들을 보면 그것들은 주로 연대를 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도피안사 향도들이 불기를 적었던 것은 불상의 제작 연대를 밝히고자 함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보다는 자신들이 살고 있던 때가 석가가 입적하여 삼천광이 비치지 않게 된 지 1806년 후이므로 슬퍼할 수밖에 없는 말세라는 시대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상대적으로 도피안사 향도들의 말세의식이 보다 더 절실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한산주 일대에서 말세의식이 강하였고, 따라서 미륵불이 하생하는 이상세계의 도래를 열망하였던 것이 바로 철원 지역의 하층농민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궁예가 하필 철원을 도읍으로 삼은 이유 중의 하나는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해본다.

(2) 건국—호족들과의 제휴

궁예에게 귀부한 패서호족으로 우선 平州(平山)의 朴遲胤 가문을 들 수 있다.⁴¹⁾ 그 아버지 朴直胤은 신라말 大毛達이었다고 한다. 대모달은 고구려의 장군직명인 大模達을 가리키는 것으로 신라의 장군에 견주어 볼 수 있다. 너무도 당연한 것이지만 신라 정부에서 박직윤을 대모달에 임명하였을 리는 없다. 그는 대모달을 자칭하였을 것이다. 신라 하대 대호족들이 장군을 자칭하였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박직윤은 평주의 대호족으로서 패서 지역의 13군현⁴²⁾을 거점으로 대두한 호족들에게 상당한 지배력을 행사하였으리라는 점, 그의 아들 박지윤도 역시 그러하였으리라는 점 등을 짐작할 수 있다.⁴³⁾ 그리

41) 이하 박지윤 가문에 관한 사실은 〈朴景仁墓誌〉(《朝鮮金石總覽》上), 303쪽 및 〈朴景山墓誌銘〉(《韓國金石文追補》, 亞細亞文化社, 1968), 143쪽에 의함. 그 가문의 사회적 진출과 궁예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鄭淸柱, 〈新羅末 高麗初 豪族의 形成과 變化에 대한 一考—平山 朴氏의 一家門의 實例 檢討—〉(《歷史學報》 118, 1988), 3~15쪽 참조.

42) 李基東, 〈新羅 下代の 湏江鎮〉(《韓國學報》 4, 1976; 《新羅骨制品制社會와 花郎徒》, 韓國研究院, 1980, 212~216쪽).

43) 이상과 관련하여서는 金光洙, 〈高麗建國期の 湏西豪族과 對女眞關係〉(《史叢》 21 · 22, 1977), 138~139쪽 참조.

고 박지윤이 궁예에게 귀부함⁴⁴⁾에 따라 패서 지역의 다른 호족들도 궁예에게 귀부하였을 것으로 보아 좋을 듯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패서호족들의 귀부는 일차적으로 궁예의 병력이 많고 강함에 말미암은 것이었다. 그렇다면 박지윤은 궁예와의 정면 대결을 피하고, 자신의 세력권에 대한 기득권을 최대한 보장받으려는 목적에서 궁예에게 귀부하였다고 할 수 있다.⁴⁵⁾ 하지만 대호족이었던 박지윤의 귀부를 그렇게 간단히 취급할 수는 없다. 그가 귀부하였던 것은 궁예와의 결합을 통해 얻고자 하는 더 큰 무엇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박지윤은 박혁거세의 후손으로 되어 있다. 그의 할아버지인 赤烏는 신라의 지방관을 역임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박직윤 이래 평주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의 가문은 본래 중앙의 귀족가문이었으나 박직윤대에 평주에 낙향하였던 것이다. 낙향하게 된 이유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그가 중앙관리로서 출세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처지였을 것임은 짐작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박직윤은 반신라적인 성향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여기서 박지윤이 대모달이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패서 지역에서 대모달과 같은 고구려 직명이 통할 수 있었음을 일러준다.⁴⁶⁾ 나아가 그 지역 주민들의 상당수가 고구려 유민들이었으리라는 점, 당시까지도 그들이 고구려의 문물제도를 알고 있었으리라는 점 등을 시사한다. 요컨대 패서 지역의 주민들 중 상당수가 고구려 유민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박직윤이 장군이 아니라 하필 대모달을 칭하였던 것은 그가 고구려의 재건을 내세우면서 이 지역의 고구려 유민들을 지배하였음을 알려 주는 것이 아닐까.⁴⁷⁾ 그리고 그 아들 박지윤도 역시 그러하지 않았을까. 비록 그들이 건훤이나 궁예처럼 백제나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명분을 걸고 건국은 하지 못하였지만, 그 先驅로 느껴지기까지 한다. 이처럼 반신라적인 나아가 고구려를 재건한다는 기치를 내세우면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려는 기미마저 보이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박지

44) 鄭淸柱, 앞의 글(1988), 12쪽.

45) 河炫綱, 〈高麗建國의 經緯와 그 性格〉(《韓國中世史研究》, 一潮閣, 1988), 25쪽.

46) 金光洙, 앞의 글, 139쪽.

47) 鄭淸柱, 앞의 글(1988), 10쪽.

윤에게 있어 패서 지역에 대한 기득권의 유지라는 것은 그가 궁예에게 걸었던 최소한의 기대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박지윤은 궁예와 제휴하여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고, 나아가 새로운 국가의 지배세력으로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향상시키려고 하였을 것으로 믿어진다. 박지윤을 따라 궁예에게 귀부하였던 다른 패서호족들도 이에 준하여 생각해서 좋을 줄 안다.

한편 박지윤은 상당한 무력을 소유하고 있었고, 또 동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여겨진다. 박지윤과 그의 영향력하에 놓여 있었을 패서호족들은 溟江鎭의 군사조직에 기대어 성장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⁴⁸⁾ 그렇다면 비록 궁예가 군사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도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는 박지윤을 비롯한 패서호족들과의 무력 대결을 바람직하게 여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과의 제휴를 원하였을 법하다. 신라를 타도하고 새로운 국가를 세우겠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다 확고한 군사적 기반을 필요로 하였을 궁예였음을 생각하면 이는 그럴듯하게 여겨진다.

패서호족들이 궁예에게 귀부할 즈음인 896년 松岳(開城)의 王隆(왕건의 父, 원명 龍建, 후에 世祖)이 귀부하였다. 귀부 당시 왕룡은 沙槩이었다고 한다. 사찬은 본래 중앙의 관등이었지만, 신라 하대에 上村主 혹은 第二村主가 사용하였던 예가 있다. 고려초에는 호족 휘하의 상급 촌주들이 이를 칭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왕룡이 郡을 들어 궁예에게 귀부하였다는 것은 당시 그가 송악군 전체를 대표하는 상촌주였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그것은 상촌주 왕룡이 송악군의 향배를 결정할 수 있었음을 일러 주기도 한다. 이에 비록 왕룡이 상촌주였지만, 이미 송악군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를 호족에 버금가는 존재로 취급하여 좋을 줄 안다.⁴⁹⁾ 그렇다면 왕건 가문의 호족적 기반은 그리 강한 것이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예는 왕건가를 후원하고 우대하였던 듯하다. 가령 궁예는 왕룡의 설득에 따라 송악에 勃禦塹城을 쌓도록 하고 그 성주에 왕건을 임명하였다고 한다. 이로써 왕건가의 송악군에 대한 지배권이 보다 확고하게 되었을 것이다. 귀부 당시 호족에 준하는 지위를 갖고 있었던 왕건가는 이제 본격적으로 송악의 호족으로

48) 李基東, 앞의 책, 216~220쪽.

49) 李基東, 위의 책, 227~228쪽 참고.

서 행세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이 궁예가 호족적인 기반이 약한 왕건가를 후원하고 우대하였던 것은 궁예가 그들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왕건가는 그 선대로부터 해상무역에 종사하였으며, 그를 통하여 상당한 富를 쌓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궁예가 왕건가를 우대하였던 것은 특히 그들의 경제력을 자신의 기반으로 삼고자 함이었다고 이해된다.⁵⁰⁾

군사적 기반이 강하였던 평주의 대호족 박지운을 비롯한 패서호족들과 상당한 경제력을 확보하고 있었던 왕건가와 제휴하였던 궁예는 898년 철원을 떠나 송악으로 천도하였다. 송악이 왕건가의 본거지라는 점이나 그 배후에 바로 평주가 위치한다는 점 등이 눈길을 끈다. 즉 궁예가 박지운과 왕건가와 의 결합을 공고히 하여 그들의 군사적·경제적 기반을 활용하려고 천도를 결정하였던 것으로 헤아려 볼 수 있다. 송악으로 천도한 이듬해인 899년 궁예는 복원을 중심으로 대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양길과 겨뤘던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는 궁예의 송악 천도가 성과를 거두었음을 말해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양길을 격파함에 따라 그 이듬해(900) 궁예는 남쪽으로 영역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廣州와 唐城(南陽)을 수중에 넣음으로써 궁예는 한강 하류 유역을 확보하고, 나아가 서해 활동의 기반을 다짐으로써 해상으로부터 후백제를 견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南漢江 유역의 요지인 國原(忠州)과 인근 지역을 확보함으로써 후삼국 관계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었던 것이다.⁵¹⁾ 그러므로 900년 정복활동의 성공적 수행은 901년 궁예가 후고구려⁵²⁾를 세울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거니와, 이 역시 궁예가 송악 천도를 통해 박지운과 왕건가와 의 결합을 보다 공고히 하여 그들의 군사적 경제적 기반을 충분히 이용한 결과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처음 미륵신앙을 내세워 하층농민을 포섭하여 자신의 기반으로 삼았던 궁예였지만, 그러나 호족들과의 제휴를 통해 건

50) 朴漢高, <後三國의 成立>(《한국사》3, 국사편찬위원회, 1976), 635쪽.

51) 이상과 관련하여서는 河炫綱, 앞의 글, 27쪽 참고.

52) 《三國遺事》권 1, 王曆 1, 後高麗 弓裔. 원래 국명은 고려였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왕건의 고려와 구별하기 위하여 후고구려라고 한다.

국하게 되었다. 미륵하생의 이상세계에 대한 종교적인 염원만으로는 또 그것만을 지닌 농민들을 이끌고서는 국가를 건설한다던가 혹은 운영한다던가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궁예정권은 호족연합정권으로서 출범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3) 마진과 태봉의 중앙정치조직⁵³⁾

(1) 광평성체제의 성립과 호족연합정권-마진

궁예는 896년 철원을 도읍으로 정하였을 무렵 나라를 열고 임금을 칭할 수 있겠다고 자부하면서 처음으로 중앙과 지방의 관직을 두었다고 한다. 이후 계속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가령 901년 궁예가 후고구려를 건국한 이후 정치조직이 보다 짜임새 있게 만들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궁예는 904년에 「百官」을 두고 국호를 摩震, 연호를 武泰로 하였다고 한다.⁵⁴⁾ 廣評省과 兵部를 비롯한 여러 관부가 이 때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전하고 있다. 하지만 904년에 처음으로 두었다고 명시되어 있는 광평성이나, 비록 구체적으로 지목할 수는 없지만, 그 외 몇몇 관부들을 제외하고는 대개 896년 이래 필요에 따라 설치되어 왔던 것들로 짐작된다. 아마도 904년에 그것들 간의 담당 업무나 서열 등이 조정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광평성에 장관인 匡治奈와 徐事·外書의 관원을 두었다고 하므로, 병부 이하 다른 관부들의 관직체계도 이 때 정비되고, 관원도 충원되었을 것이다. 904년에 관리들의 위계를 나타내는 관등이 정비된 것은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궁예가 중앙정치조직의 정비를 일단락지었던 것은 바로 904년이었다고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여러 관부들 중 최고 관부는 광평성이었다. 뿐만 아니라 광평성은 그 설치 당시부터 적어도 한동안은 정치적 권력의 핵심에 해당하였다고 여겨진다. 이에 904년에 이루어진 중앙정치조직 정비를 광평성체제

53) 이하의 서술은 趙仁成, 앞의 책(1991), 63~92쪽에 의거하였다.

54) 이하 마진의 중앙정치조직에 관한 사실은 《三國史記》권 11, 新羅本紀 11, 효공왕·권 40 職官志 下 및 권 50, 列傳 10, 弓裔傳에서 찾을 수 있다.

의 성립이라고 한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광평성을 비롯한 여러 관부들은 신라의 그것들을 모방한 것이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각 관부들을 고려의 그것들과 맞추어 놓았다. 그를 토대로 만들어 본 것이 〈표 1〉이다.⁵⁵⁾

〈표 1〉 摩震과 新羅·高麗 官府의 對比

新 羅	摩 震	高 麗
官 府	序 列 官 府	官 府 所 管 業 務
兵 部	(1) 廣評省	(兵 部) 掌武選·軍務·儀衛·郵驛之政
倉 部	(2) 兵 部	倉 部 掌戶口·貢賦·錢糧之政
禮 部	(3) 大龍部	禮 部 掌禮儀·祭享·朝會·交聘·學校·科舉之政
領客府	(4) 壽春部	禮賓省 掌賓客燕亭
左·右理方府	(5) 奉賓部	刑 部 掌法律·詞訟·詳讞之政
調 府	(6) 義刑臺	大府寺 掌財貨廩藏
	(7) 納貨府	三 司 掌摠中外錢穀出納會計之務
	(8) 調位府	
	(9) 內奉省	
例作府	(10) 禁書省	秘書省 掌經籍祝疏
船 府	(11) 南相壇	將作監 掌土木營繕
詳文師	(12) 水 壇	水 部 掌山澤·工匠·營造之事
乘 府	(13) 元鳳省	翰林院 掌制撰詞命
物藏典	(14) 飛龍省	太僕寺 掌輿馬廐牧
	(15) 物藏省	小府監 掌工技寶藏
	(16) 史 臺 (掌習諸譯語)	
	(17) 植貨府 (掌栽植菓樹)	
	(18) 障繕府 (掌修理城隍)	
	(19) 珠淘省 (掌造成器物)	

55) 마진의 관부와 신라 관부와의 비교는 주로 李泰鎮이 작성한 〈표〉를 참조하였다
(〈高麗 宰府의 成立—그 制度史의 考察—〉, 《歷史學報》56, 1972, 5쪽).

고려 관부의 ‘所管業務’는 《高麗史》권 76, 志 30, 百官 1에 의거함.

광평성은 서열 제1위의 행정관부였다. 이 점에서 광평성은 신라의 執事部에 대응한다. 泰封代나 고려초 광평성의 장관이었던 시중도 집사부의 시중에서 비롯된 명칭일 것이다.⁵⁶⁾

한편 광평성의 장관 광치나는 고려의 侍中에 대응하는 것으로 註記되어 있다. 그에 따른다면 광평성은 內史門下省(中書門下省)에 해당하는 관부였다고 할 수 있다. 그에 소속된 宰臣들이 국정을 논의 결정하였던 내사문하성은 門閥貴族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이었으므로 그것은 진골귀족의 이익을 대변하였던 和白과 통한다고 여겨진다. 이 점에서 광평성은 신라 화백의 전통을 이은 관부였다고도 볼 수 있다.⁵⁷⁾

이처럼 광평성이 언뜻 모순되어 보이는 두 가지 면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은 신라 하대의 執事省을 떠올리게 한다.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중대 전제 왕권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였던 집사부는 하대에 들어와 진골귀족 세력과 연결되고 있었다. 즉 집사성은 국왕 밑의 행정관부였으면서도 본질적으로는 오히려 화백과 통하는 면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광평성을 신라 하대의 집사성에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⁵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901년 후고구려 건국과 함께 출범한 궁예정권은 호족연합정권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다. 광평성체제가 성립되었던 904년 당시 궁예정권은 여전히 호족연합정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호족들과 제휴함으로써 건국할 수 있었던 궁예가 그 후 불과 3년 만에 호족세력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왕권을 신장시키기는 어려웠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광평성은 호족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구로서 설치되었고, 적어도 한동안은 그런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믿어진다.

한편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였던 궁예의 노력이 광평성체제에 일정하게 반

56) 李泰鎮, 앞의 글, 4쪽.

邊太燮, 〈高麗初期의 政治制度〉(《韓祐勳博士停年紀念 史學論叢》, 一潮閣, 1981), 169~170쪽.

57) 李基白, 〈貴族의 政治機構의 成立〉(《한국사》 5, 국사편찬위원회, 1975), 18~20쪽.

58) 이상과 관련하여서는 李基東, 〈羅末麗初 近侍機構와 文翰機構의 擴張—中世의 側近政治의 志向—〉(《歷史學報》 77, 1978 ; 앞의 책, 244~246쪽) 참조.

영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내봉성의 경우가 참고된다. 내봉성은 都省 곧 御事都省(尙書都省)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기되어 있다. 어사도성은 選官(吏部)·兵官(兵部)·民官(戶部)·刑官(刑部)·禮官(禮部)·工官(工部)으로 구성된 것이었다. 그런데 병부·대룡부·의형대·수춘부·수단 등은 선관을 제외한 병관 이하의 여러 관부에 각각 해당한다(〈표 1〉). 따라서 내봉성을 어사도성에 비겼던 것은 내봉성이 人事를 담당하는 기구였기 때문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내봉성은 신라의 位和府에 해당하는 관부였던 것이 된다.⁵⁹⁾

여기서 내봉성의 이름이 국왕의 측근에서 명령을 받드는 관부였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즉 내봉성은 궁예의 측근에서 그의 인사 명령을 받드는 관부였던 셈이다. 이처럼 인사를 담당하였던 내봉성이 궁예의 近侍機構였다는 점은 인사권을 장악하려고 하였던 궁예의 의도가 반영되었던 결과가 아닐까. 광평성의 설치로 호족들에게 상당한 양보를 하였던 궁예가 그 반대급부로서 인사권을 차지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였던 궁예의 의도와 관련하여서는 원봉성과 물장성의 경우도 참고된다. 원봉성과 물장성은 신라의 상문사(후의 翰林臺·瑞書院)와 물장전의 후신으로 여겨진다(〈표 1〉). 그런데 상문사와 물장전은 宮內府라고 할 수 있는 內省과 御龍省에 소속된 관부였다.⁶⁰⁾ 이 점에서 상문사와 물장전은 집사부나 병부 등과는 그 格을 같이 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반면 마진에서는 원봉성과 물장성이 병부 등 다른 관부들과 같이 병렬되어 있다. 이는 그것들이 독립된 관부로 격상되었음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신라 궁내부 소속의 관부들은 국왕 직속이었다. 따라서 그것들이 광평성 체제에서 독립된 관부로 격상되었다는 것은 광평성체제를 통하여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였던 궁예의 의도를 일러주는 것으로 보아 무방하지 않을까. 신라의 궁내부 계통의 각 관부가 정비되는 것이 중대에 있어서의 왕권강화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는 점⁶¹⁾을 고려하거나 경문왕대를 전후하여 왕권이

59) 이와 관련하여서는 李泰鎮, 앞의 글, 9쪽 및 32~33쪽 참고. 그런데 내봉성에 대해서는 신라의 집사부에 비기는 견해(李基白, 앞의 글, 20~21쪽)를 비롯하여 다양한 견해가 제출된 바 있다.

60) 三池賢一, 〈新羅內廷官制考〉(上)(《朝鮮學報》61, 1971), 1쪽 및 22~32쪽 참고.

61) 三池賢一, 위의 글(下)(《朝鮮學報》62, 1972), 59쪽.

강화되면서 文翰機構가 확장되었던 사실⁶²⁾과 원봉성의 독립과 격상을 연관 지어 볼 적에 이는 그럴 듯하게 여겨진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광평성체제 성립 당시 왕권이 호족세력을 압도할 수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왕권강화를 위한 공예의 노력이 아직 성공을 거두기는 어려웠던 것 같다. 가령 내봉성의 서열이 겨우 9위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표 1〉)에서 그러한 사정을 엿볼 수 있다. 공예가 내봉성을 통하여 인사권을 장악하려고 하였지만 그에 대한 호족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고, 그 결과 내봉성의 서열이 9위에 그쳤던 것이라고 헤아려지는 것이다. 따라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였던 공예의 의도가 광평성체제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기본적으로 호족연합정권을 뒷받침하는 중앙정치조직이었다고 파악된다.

(2) 광평성체제의 변화와 전제왕권—태봉

904년 성립된 광평성체제는 그 이후 재정비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 그 전모를 알려주는 기록은 찾을 수 없지만, 《高麗史》권 1, 世家 1, 태조 원년(918) 6월 신유조에 나오는 인사발령을 통하여 어느 정도 그 변화의 양상을 엿볼 수 있다. 이 인사 조치는 왕건이 즉위한 지 6일 만에 나온 것으로, 거기에는 904년 이후로부터 태봉이 몰락한 918년까지의 사정이 반영되어 있다. 그것을 정리한 것이 〈표 2〉이며, 이를 성립 당시의 광평성체제와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첫째 904년 이후 새롭게 설치되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관부들을 발견할 수 있다. 가령 순군부의 경우 〈표 1〉에는 나오지 않지만 〈표 2〉에서는 찾을 수 있다. 그런데 〈표 2〉를 보면 광평낭중에 임명된 신일과 임식, 내봉경에 임명된 능준은 전 순군부 관리였다. 따라서 순군부는 904년 이후 왕건 즉위 이전의 어느 시기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인다.⁶³⁾ 진각성과 內軍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⁶⁴⁾

62) 李基東, 앞의 책, 241~244쪽 및 262~263쪽.

63) 李泰鎮, 앞의 글, 8쪽 주 16.

64) 邊太燮, 앞의 글, 158쪽.

〈표 2〉

太祖 원년(918) 6월 辛酉의 人事發令

序列 官府	長 官	次 官	下 級 職
1) 廣評省	侍中(韓粲 金行壽)	侍郎(闕粲 林積璵)	郎中(前尙軍部郎中 韓粲 申一) (前尙軍部郎中 韓粲 林寔)
2) 內奉省	令(韓粲 黔剛)	卿(前尙軍部卿 能駿) (倉部卿 權寔)	員外郎(前廣評史 國鉉) 監(前廣評郎中 康允珩) 理決(前廣評史 倪言) 評察(內奉史 曲矜會) 郎中(前內奉史 劉吉權)
3) 尙軍部	令(韓粲 林明弼)		
4) 兵 部	令(波珍粲 林曦)	卿(闕粲 金堧) (闕粲 英俊)	
5) 倉 部	令(蘇判 陳原)	卿(闕粲 崔汶) (闕粲 堅術)	
6) 義刑臺	令(韓粲 閻菴)		
7) 都航司	令(韓粲 歸評)	卿(林湘煖)	
8) 物藏省	令(韓粲 孫迥)	卿(姚仁暉) (香南)	
9) 內泉部	令(蘇判 秦勁)		
10) 珍閣省	令(波珍粲 秦靖)		
11) 白書省		卿(一吉粲 朴仁遠) (一吉粲 金言規)	
12) 內 軍		卿(能惠) (曦弼)	

둘째, 관부의 서열이 일부 변하기도 하였다. 〈표 2〉를 보면 내봉성이 제2위로, 순군부가 제3위로, 병부가 제4위로 되어 있어 〈표 1〉의 그것과는 다르다. 이러한 변화는 정변을 주도한 세력의 계획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표 2〉에 나오는 관부들이 왕건 즉위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상과 같은 서열의 변화도 904년 이후 918년 이전에 일어났던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셋째, 각 관부 소속의 관직도 늘어났던 듯하다. 〈표 2〉에 내봉감에 임명되

었다고 나오는 강윤형은 전 광평낭중이었으며, 광평원의랑 국현·내봉이결 예언은 전 광평사였다. 광평성 설치 당시 고려의 시랑과 원외랑에 해당하는 서사와 외서가 설치되었을 뿐 낭중과 사에 해당하는 관직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낭중과 사는 904년 이후에 새로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로써 다른 관부의 관직도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넷째, 기왕의 관부 명칭이 바뀐 경우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를 보면 창부경 권식이 내군경에 임명되었다. 창부는 <표 1>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새로 설치되었던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아마도 <표 1>의 대룡부를 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도향사도 수단의 개명일 것이다.⁶⁵⁾

지금으로서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변화가 언제 일어났는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하지만 그 시기를 대략 911년을 전후한 시기로 잡아 보려고 한다. 904년 국호를 후고구려에서 마진으로 바꾸고 더불어 성립된 광평성체제가 911년 태봉으로 국호를 변경할 즈음에 재정비되어 고려초까지 계속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광평성체제의 변화가 의미하는 바와 관련하여 먼저 관부 명칭의 변경이 주목된다. 가령 신라의 진각성은 穢宮典을 개명한 관부로서 이른바 漢化政策이 추진되었던 경덕왕대와 9세기 중엽에 사용되었던 명칭이다.⁶⁶⁾ 비록 광평성체제의 진각성은 태봉대에 새로 설치되었던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로 미루어 위에서 언급한 대룡부에서 창부로, 수단에서 도향사로의 변화를 한식 개명이었던 것으로 보아 무방하지 않을까 싶다. 신라시대의 한화정책이 왕권강화를 촉진하려는 경향의 표현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광평성체제의 변화는 태봉대에 왕권이 강화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다음으로 서열의 변화와 관직의 증가와 관련하여서는 내봉성이 주목된다.

65) 李基白, 앞의 글, 21쪽.

66) 《三國史記》 권 39, 志 8, 職官 中 및 권 11, 新羅本紀 11, 문성왕 15년 8월. 한화정책에 대해서는 李基白, 〈新羅 惠恭王代の 政治的 變革〉(《社會科學》 2, 1958 ;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74, 244~247쪽) 및 李基東, 앞의 책, 235~237쪽 참고.

우선 광평성체제가 성립할 당시 서열 제9위였던 내봉성이 제2위의 관부가 되었다는 것은 그 정치적 비중이 커졌음을 뜻한다. 궁예는 내봉성을 통해 본격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며, 그것은 곧 왕권이 보다 강화되었음을 말하여 준다.

앞의 <표 2>를 보면 내봉성의 장·차관인 령과 경 밑의 하위관직으로 감·이결·평찰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내봉성의 하급관직에 그것들 외에 사가 있었음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외랑이나 낭중 등도 있었을 법한데, 이는 내봉원외랑에서 내봉낭중으로 승진하였던 允珩의 예⁶⁷⁾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결국 내봉성의 하급관직은 낭중 계통과 감 계통으로 나누어지는 셈이다. 그 중 다른 관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낭중·원외랑·사는 내봉성의 인사 업무를 맡아 처리하였던 관직으로 보인다. 반면 감·이결·평찰 등은 인사와는 다른 특수한 업무를 맡았던 관직인 것 같다.

후자와 유사한 명칭을 신라의 內司正典에서 찾을 수 있어 흥미롭다. 이결과 평찰은 내사정전의 議決과 貞察에 각각 대비해 볼 수 있다.⁶⁸⁾ 그렇다면 이결·평찰의 임무를 관리들에 대한 감찰로 볼 수는 없을까. 그리고 감도 역시 감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좋지 않을까 한다.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내봉성은 이제 사정도 담당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듯하며, 내봉성의 格上이 갖는 정치적 의미는 본래의 인사 기능 외에 사정 기능이 추가되었다는 것과도 무관할 수 없으리라고 짐작된다. 이에 감·이결·평찰 등은 광평성체제가 변화하면서 새로 설치된 것이며, 그것은 궁예가 관리들에 대한 자신의 통제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헤아려본다.⁶⁹⁾

<표 1>을 보면 광평성체제 성립 당시 군사 문제를 담당하였던 관부로는 병부를 찾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태봉대에는 순군부와 내군이 새로 두어

67) 《高麗史》 권 1, 世家 1, 태조 원년 을축.

68) 《三國史記》 권 39, 志 8, 職官 中.

邊太燮, 앞의 글, 171쪽, 주 56.

69) 감·이결·평찰이 인사의 공정을 위하여 설치되었다고 여기는 견해(李泰鎮, 앞의 글, 9쪽)와 내부 행정의 감독을 맡았으리라는 견해(邊太燮, 위의 글, 170~171쪽)도 있다.

졌다. 그 중 순군부는 병부보다 중요시되기까지 하였다. <표 2>에 드러나 있듯이 순군부는 서열 제3위, 병부는 서열 제4위였던 것이다. 그러면 그것들은 어떠한 배경에서 설치되었을까.

광평성체제 성립 당시의 병부는 신라의 병부에 해당한다고 여겨진다. 신라의 병부는 신라가 본격적으로 영역을 넓혀 나갔던 법흥왕 때 설치되었다. 이는 그것이 일반적인 군사 업무 즉 軍政 외에도 軍수를 담당하는 관부로 두어졌던 것임을 시사한다. 마진의 병부도 본래는 그러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도 이른바 후삼국이 서로 전쟁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순군부는 兵權을 관장하는 기관이었다고 한다.⁷⁰⁾ 여기에서의 병권이란 군사지휘권 즉 군령권을 가리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⁷¹⁾ 결국 궁예는 광평성체제를 개편하면서 병부로부터 군령권을 분리하여 순군부로 하여금 맡도록 한 셈이 된다.⁷²⁾

당시가 戰時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순군부 신설과 관련하여 일단 군사적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전쟁수행을 위해서는 군령만을 전담하는 기구를 둘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다. 순군부의 서열이 병부에 앞섰던 것은 이를 시사한다.

한편 효율적인 지휘는 지휘권의 강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 점에서 순군부는 최고지휘관으로서의 궁예의 지휘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진 때에도 출전 명령권 등 군의 최고지휘권은 궁예에게 속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 호족연합정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그의 권한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궁예의 지휘권 강화라는 것은 결국 왕권의 강화와 연결되는 것이라고 하여 좋지 않을까. 순군부

70) 《高麗史》권 127, 列傳 40, 桓宣吉.

71) 李基白, 〈高麗京軍考〉(《李丙叢博士華甲紀念論叢》, 一潮閣, 1956; 《高麗兵制史研究》, 一潮閣, 1968, 55쪽). 순군부가 병권(군령권)을 맡았던 관부라는 견해는 대체로 인정되고 있지만, 이와 달리 순군부를 후삼국시대의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大本營의 성격을 지닌 관부라는 견해(黃善榮, 《高麗初期 王權研究》, 東亞大 出版部, 1988, 135~137쪽)와 국왕의 명에 따라 병력의 징발과 동원을 담당한 관부였다는 견해(鄭景鉉, 〈高麗初期 京軍의 統帥體系—尙軍部의 兵權에 대한 再解釋을 겸하여—〉, 《韓國學報》62, 1991, 43~52쪽) 등도 있다.

72) 李基白, 위의 책, 51쪽.

를 통하여 궁예는 군부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통제를 행할 수 있게 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나아가 순군부의 설치에 병부가 군사적 권한을 독점함으로써 야기될 수도 있는 왕권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도 짐작된다.

내군은 친위군으로서 궁예의 신변 경호를 맡았을 것이다.⁷³⁾ 그런데 내군 장관 狿鉞는 참소를 자행하여 자주 죄없는 사람들에게 죄를 씌웠다고 한다. 은부가 궁예의 신임을 받았던 인물이었다는 점이나 그가 군인이었다는 점 따위를 고려하면 은부가 하였다는 참소나 모략이란 그가 군 내부의 반역 움직임을 적발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 아닐까.⁷⁴⁾ 결국 내군의 설치에 군부를 보다 강력하게 통제하려고 하였던 궁예의 의도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파악되며, 이 점에서 그것은 순군부의 설치와 그 성격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태봉대 광평성체제의 변화를 궁예의 왕권강화와 연결지어 검토하였거니와, 이에 따라 호족세력의 대표였다고 여겨지는 광평성 시중의 정치적 지위가 낮아졌으리라는 예상을 하게 된다. 가령 913년 시중이 된 왕건은 「衆心」을 얻고자 힘썼다고 한다.⁷⁵⁾ 이는 그가 시중으로서 호족들의 이해를 두루 대변하려고 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阿志泰의 참소 사건을 해결한 후 따르는 자들이 많아 왕건은 화가 미칠까 두려워 戰線으로 나가기를 원했고, 914년 궁예는 그를 시중에서 해임하여 다시 수군을 맡도록 하였다고 한다. 이는 수군 장수가 적에게 두려움을 줄 수 없다는 궁예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겨진다. 그보다는 호족들의 대표자로서 활동하고자 하였고, 그로 인해 그들로부터 신망을 얻고 있었던 왕건을 호족들과 격리시키려는 궁예의 의도에 의한 것이었다고 헤아려 보는 것이다. 요컨대 궁예는 이제 시중이 행정 실무자로서 자신에게 충성하기를 원하고 있었으며, 왕건의 해임에서 엿볼 수

73) 李基白, 위의 책, 55~56쪽.

74) 은부에 대해서는 《高麗史》 권 1, 世家 1, 태조 원년 6월 임술조와 《高麗史節要》 권 1, 태조 원년 6월조 참조.

75) 이하의 사실에 대해서는 《高麗史》 권 1, 世家 1, 태조 즉위전조 참조.

있는 바와 같이 그러한 자신의 바램에 어긋날 경우 시중을 교체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만큼 왕권이 신장되었음을 알려 주고 있는 것이다.

4) 태봉의 몰락⁷⁶⁾

(1) 궁예의 정교일치적 전제주의의 추구하고 그 지지세력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광평성체제 내에 원봉성과 같은 문한기구가 있었다. 곧 이어 언급하게 될 朴儒와 崔凝을 비롯한 유학자 혹은 문인이라고 할 인물들이 궁예정권에서 활동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궁예가 유학자들을 포섭하였으리라는 점을 알려 준다.⁷⁷⁾ 아마도 궁예는 유교를 왕권강화의 한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다 아는 바와 같이 궁예는 미륵불임을 자칭하였다. 그리고 두 아들을 각각 靑光菩薩과 神光菩薩로 삼았다.⁷⁸⁾ 궁예는 자신은 물론 아들까지 神格化하였다. 이는 미륵신앙이 궁예의 왕권전제화를 뒷받침하는 사상으로서 가장 중요시되었음을 단적으로 말하여 준다.

미륵불은 轉輪聖王이 세상을 다스릴 때 하생하는 것이라고도 한다. 궁예가 국왕이었음을 고려하면 당시 그는 진륜성왕이자 동시에 미륵불이었던 셈이며⁷⁹⁾, 그는 이제 세속에 있어서의 통치자로서의 권위와 종교에 있어서의 신으로서의 권위를 오로지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궁예가 미륵신앙에 기초를 둔 정교일치적 전제주의를 추구하였다고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⁸⁰⁾

궁예는 항상 말하기를 자신이 彌勒觀心法을 터득하여 부인의 음사를 알아

76) 이하의 서술은 주로 趙仁成, 앞의 책(1991), 93~120쪽에 의거하였다.

77) 이들에 대해서는 全基雄, 〈羅末麗初 地方出身 文士層과 그 役割〉(《釜山史學》 18, 釜山史學會, 1990) 참조.

78) 《三國史記》 권 50, 列傳 10, 弓裔. 이하 이 절과 관련된 자료들은 주로 이 열전을 비롯하여 《高麗史》 권 1, 世家 1, 태조 즉위전조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위의 자료들은 전거 제시없이 이용하려고 한다.

79) 金杜珍, 앞의 책(1983), 130~131 쪽 참조.

80) 李基白은 이를 “불교신앙에 기초한 觀念的 專制主義 경향”이라고 한 바 있다(李基白, 앞의 글, 1975, 19쪽, 주 10).

낼 수 있다고 하면서 그를 적발하여 잔혹하게 처벌하였다고 전한다. 불교의 계법에서 음사를 금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궁예의 미륵신앙이 진표의 미륵신앙에 기초하였다는 점이나 진표가 계율을 매우 중요시하였다는 점 따위를 고려하면 궁예는 백성들에게 계율의 준수를 요구하였다고 풀이할 수 있을 듯하다. 그리고 계율이 속세의 율령과 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궁예가 계율을 강조한 사실의 또다른 측면은 엄격한 율령통치의 추구였던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요컨대 궁예의 정교일치적 전제주의가 세속적으로는 율령에 의한 法家的 지배를, 종교적으로는 계율의 엄수를 표방하였던 것이라고 파악된다.

그런데 궁예가 왕건에게 모반의 혐의를 씌워 그를 죽이려고 하였던 일이 있었다. 그 때 궁예가 왕건의 모반을 밝혀낼 수 있다고 내세웠던 것은 미륵관심법이였다. 이를 통해 궁예의 미륵관심법이 부인의 음사만이 아니라 모반의 적발과 처벌에도 이용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궁예가 미륵관심법을 내세웠던 중요한 목적이 자신에게 반발하는 세력을 제압하고, 혹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 세력의 출현을 억제하고자 하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게 된다. 미륵관심법을 통한 지배층에 대한 궁예의 통제와 감시의 강화는 관리들을 감찰하기 위하여 내봉성에 사정 기능을 더하고, 신변 경호는 물론 군의 동향을 감시하기 위하여 내군을 새로 설치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였던 광평성체제의 변화와 서로 짝하는 면이 있다고 여겨진다. 이 점에서 궁예가 추구하였던 정교일치적 전제주의는 반궁예세력의 억압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몰락하지 않았더라면 누릴 수 있었을 진골귀족으로서의 특권과 권위의 회복을 일찍부터 꿈꾸어 왔던 궁예였고 보면 그는 권력을 남과 나눈다거나 하는 일에 아무래도 인색하였을 것이다.⁸¹⁾ 이와 아울러 후백제나 신라와의 전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도력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법도 하다. 이상이 궁예가 왕권의 전제화

81) 洪承基, 앞의 글, 72~73쪽.

를 피하였던 배경일 것으로 짐작되지만, 그러나 그런 설명만으로는 그가 추구하였던 전제주의가 하필 정교일치적인 경향을 띠게 되었던 까닭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궁예의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고, 그를 바탕으로 그가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정교일치적 전제주의로 나아갈 수 있었으리라는 생각을 하게도 된다. 그 반면 궁예의 전제주의가 정교일치에 기초하고 있었다는 점은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왕권강화가 여의치 못한 면이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위에서의 논의대로 궁예가 미륵관심법을 통해 반궁예세력을 억압하려고 하였다면 그 중 후자가 보다 주목되어야 할 것으로 믿어진다. 호족연합정권으로부터 벗어나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였던 궁예의 노력이 호족들의 반발에 부딪치자 그는 자신을 신격화함으로써 그에 대응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⁸²⁾

궁예의 정교일치적 전제주의를 지지하였던 세력으로서는 우선 궁예의 미륵신앙을 지지하였던 승려들을 꼽을 수 있겠다. 가령 궁예가 행차할 때 범패를 부르며 뒤를 따랐다는 승려들이 그들이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미 살펴본 바 있는 허월을 떠올릴 수 있다. 명주의 증소호족 출신으로 굴산문 개창기에 속한 승려였던 그는 궁예가 명주에서 자립할 때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태봉이 무너질 무렵에는 궁정 안의 사원이었던 내원에 머무르고 있을 정도로 궁예의 신임을 받았던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한 그가 궁예의 정교일치적 전제주의를 사상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뒷받침하였으리라는 점에는 별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아울러 궁예의 총애를 받았다는 宗僉⁸³⁾도 주목된다. 그는 어려서 승려가 되었던 인물로서 이 점 궁예와 유사하여 흥미롭다. 종간이 이미 세달사 시절부터 궁예의 추종자였었던 것은 아닐까 상상되기도 한다. 그러하지는 않았더라도 종간과 궁예의 관계는 두 사람 모두 승려였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밀접한 것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종간이 승려였었고, 궁예의 심복이었다면 그 역시 궁예의 정교일치적

82) 이와 관련하여서는 李基白, 앞의 글(1975), 19쪽 참조.

83) 종간에 대해서는 《高麗史》 권 1, 世家 1, 태조 원년 6월 임술조 및 《高麗史節要》 권 1, 태조 원년 6월조 참조.

전제주의를 사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뒷받침하였을 것으로 여겨 큰 무리는 없을 듯하다. 단 중간이 허월과 달리 蘇判이라는 고위 관등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 유의된다. 두 사람을 비교할 때 허월이 주로 사상적인 측면에서 궁예의 정교일치적 전제주의를 지지하였다면 중간은 주로 정치적인 측면에서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전문적인 군인 출신들을 들 수 있다. 먼저 내군장군 은부를 그 예로 생각할 수 있다.⁸⁴⁾ 그는 중간과 더불어 궁예의 심복으로 꼽혔던 인물이다. 그런데 은부는 어려서 죄인이 되었다고 한다. 범죄에 연루되었던 이상 그 이후의 그의 사회경제적 처지는 그리 높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한 은부가 장군으로 출세할 수 있었던 것은 군인으로서의 자질을 발휘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점에서 은부는 전문적인 군인 출신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伊昕巖도 은부와 함께 취급할 수 있다.⁸⁵⁾ 그는 왕건이 즉위하였다는 소식을 듣자 모반할 마음을 품고 임지를 무단히 벗어나 철원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따라서 그도 궁예에게 충성을 바쳤던 인물이었다. 이혼암은 왕건에 못지 않은 군지휘관으로 활약하였던 인물이지만 弓馬를 業으로 하였고 다른 재주나 식견을 갖고 있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는 그가 은부와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군인 출신이었음을 알려 준다. 다시 말해 이혼암도 궁예에 대한 충성심과 군인으로서의 능력을 바탕으로 출세하였던 인물이었다고 생각한다. 한편 태조 왕건은 이혼암을 처벌하였지만 그의 黨與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았다고 한다. 이혼암이 궁예로부터 신임을 받았고, 왕건에 버금가는 고위 지휘관이었다면 그를 추종하였던 인물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에 대해서는 달리 전하는 바가 없지만, 대체로 이혼암과 비슷한 인물들이 아니었을까 한다. 즉 다수의 전문적인 군인들이나 그 출신 장교들이 이혼암을 매개로 하여 궁예에게 충성을 바쳤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혼암이 모반을 꾀하였던 것도 이들을 배경으로 하였을 것이다.

끝으로 淸州勢力의 동향도 주목된다. 궁예가 904년 청주의 人戶를 철원의

84) 은부에 대해서는 《高麗史》 권 1, 世家 1, 태조 원년 6월 임술 및 《高麗史節要》 권 1, 태조 원년 6월조 참조.

85) 이혼암에 대해서는 《高麗史》 권 127, 列傳 40, 伊昕岩傳 참조.

로 사민하였던 것을 계기로 중앙정계에 진출하였던 그들은 궁예의 지지세력이었던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⁸⁶⁾ 가령 왕건 즉위 직후부터 청주세력의 모반이나 반왕건적인 움직임이 빈발하였거니와⁸⁷⁾, 이는 크게 보아 청주세력이 여전히 궁예의 지지세력이었음을 일러 주고 있다.

(2) 반궁예세력의 동향과 918년 정변

궁예의 정교일치적 전제주의를 지지하였던 세력은 오히려 소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궁예의 정교일치적 전제주의는 궁예와 그에게 충성하는 측근 인물들에 의해 유지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는 정치적 진출을 기대하였을 보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반궁예세력의 구체적인 움직임과 관련하여 915년 궁예가 부인과 두 아들을 살해한 후 의심이 많아지고 화를 잘내어 여러 신하들은 물론 심지어 백성들까지 죄없이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우선 궁예가 부인은 물론 두 아들을 죽여야 했던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였을까.

부인 康氏는 궁예가 ‘非法’을 많이 행하여 왔음에 대하여 ‘正色을 하고’ 간언하였다고 한다. 강씨의 간언의 대상이 되었던 궁예의 ‘비법’이 무엇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것이 궁예가 미륵불을 자칭하였던 사실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으로 믿어진다. 따라서 강씨는 궁예의 정교일치적 전제주의를 비판하는 자신의 입장을 명백히 표명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한다. 그런데 그에 대해 궁예는 부인 강씨를 살해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가 청광보살·신광보살이라고 하여 자신과 함께 신격화시켰던 두 아들도 죽였다. 궁예가 자신을 비판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인과 심지어 두 아들까지 살해하였을 것

86) 이 점은 이미 李基白, 앞의 책(1968), 44쪽에서 지적된 바이며, 그 후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이를 인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궁예가 전제주의를 추구하면서 청주인들을 그 기반으로 삼았다는 사실에 대한 전론이 발표된 바 있다(洪承基, 〈弓裔王의 專制的 王權의 追求〉, 《許善道紀念 韓國史學論叢》, 一潮閣, 1992).

87) 《高麗史》 권 92, 列傳 5, 王順式傳 附 堅金 · 권 127, 列傳 40, 桓宣吉 및 권 1, 世家 1, 태조 원년 10월 신유조 등을 참조.

으로는 좀처럼 생각되지 않는다. 특히 두 아들이 모두 어렸다는 점이나 그들 중 한 사람이 이미 太子로 책봉되어 있었다고 여겨진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부인 강씨가 궁예의 정교일치적 전제주의를 비판하고 나섰던 배후에는 그를 반대하는 모종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조금 더 추리하여 본다면 강씨로 대표되는 반궁예세력이 두 아들을 내세워 궁예의 정교일치적 전제주의에 도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그로 말미암아 강씨는 물론 두 아들까지도 죽임을 당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에 부인 강씨 사건에 연관되었음직한 세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더듬어 보면서 그를 통하여 반궁예세력의 동향을 검토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우선 박유가 떠오른다.⁸⁸⁾ 그는 궁예의 정치가 문란하였기 때문에 은거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東宮記室이 그의 최종 관직이었다고 보이므로, 박유의 은퇴는 궁예의 태자 살해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음직하다. 아마 그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강씨 사건에 연루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박유는 유학자였다. 그러한 그가 미륵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궁예의 정교일치적 전제주의에 찬성하기는 애당초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태봉대에 활약하였던 유학자들 대부분도 그와 마찬가지로였을 것이다. 掌奏였던 최응이 궁예로부터 모반의 혐의를 받았던 왕건을 구해 주었던 것이나, 文人 宋畝弘 등이 궁예의 몰락과 왕건의 즉위를 예언하였다는 古鏡의 글을 거짓 해석하였다는 일화는 모두 이를 알려 주는 것이라고 본다.

한편 승려들도 강씨 사건에 연관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가령 궁예의 강설을 비난하였다가 철퇴를 맞고 죽었다는 釋聰의 경우에서 그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그는 진표의 法弟子 중의 한 사람으로 진표의 가사와 간자를 왕건에게 전해주었다는 釋冲과 동일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있다.⁸⁹⁾ 만약 그렇다면 진표의 미륵신앙에 기반을 두었던 궁예의 미륵신앙은 이제 진표의 제자들로부터도 배척받았던 셈이 된다. 이 점에서 석충의 비난은 궁예에 대한 불교계의 반발이 보다 광범위한 것이었음을 시사한다. 迦微의 죽음이 그 예

88) 박유에 대해서는 《高麗史》 권 92, 列傳 5, 朴儒傳에 의거하였음.

89) 申虎澈, 앞의 글, 49~50쪽.

가 될 수 있을 듯하다. 선종 승려로서 소위 海東의 四無畏大士 중의 한 사람으로 일컬어졌던 그는 917년 궁예에게 죽임을 당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아마 석충과 비슷한 이유로 죽임을 당하였던 것 같다.

궁예와 부인 강씨의 결혼이 정치적 고려를 무시하고 이루어질 수는 없었을 것이다. 강씨는 호족출신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왕건이 집권한 후 강씨 성을 갖고 활약하였던 인물들은 대개 信川 강씨로 알려져 있다.⁹⁰⁾ 아마도 부인 강씨는 신천의 호족 출신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강씨의 중요한 배후 세력은 바로 그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尹瑄에게 생각이 미치게 된다.⁹¹⁾ 그는 패서 지역에 속했던 鹽州의 호족 출신으로 여겨진다. 윤선은 궁예 말년에 궁예로부터禍를 입을까 두려워 망명하였다고 한다. 이는 윤선이 부인 강씨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그렇지는 않았더라도 궁예로부터 반궁예세력이라는 혐의를 받았음을 일러준다. 그런데 이미 검토한 바와 같이 궁예는 건국함에 있어 패서호족들로부터 힘입은 바 컸다. 그리고 그들이 궁예에게 협력하였던 것은 자신들의 정치적 지위를 높이하고자 함에서였다. 하지만 궁예가 904년 철원으로 환도를 단행하고, 청주세력을 끌어들이는 데 따라 패서호족들의 영향력은 감소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⁹²⁾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패서호족들이 궁예의 정교일치적 전제주의에 찬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을 것임을 짐작하게 된다.

위에서 지적한 대로 부인 강씨의 도전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따라서 그를 계기로 반궁예세력에 대한 일대 숙청이 단행되었으리라는 점, 그것이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리라는 점 등을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부인과 아들을 살해한 후 궁예가 의심이 많아지고, 급하게 노하게 되어 무고한 사람들을 많이 살해하였다고 한 것은 바로 그러한 사정을 전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궁예의 감시와 숙청은 일단 반궁예세력의 조직적인 결집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가령 왕건은 洪儒 등의 政變

90) 李樹健, 《韓國中世社會史研究》(一潮閣, 1984), 171~172 쪽.

91) 《高麗史》 권 92, 列傳 5, 王順式 附 尹瑄.

92) 洪承基, 앞의 글, 75~76쪽.

참가 제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⁹³⁾ 이는 그가 정변의 성공을 확신할 수 없었음을 말해 주거니와, 궁예의 엄중한 감시 속에서 반궁예세력을 계획적으로 모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왕건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정변이 일어나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에 호응하였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홍유 등의 정변 모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자들이라는 흔적은 찾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궁예의 감시와 숙청은 오히려 반궁예세력을 확산시키고, 그들의 반궁예적인 성향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던 듯하다. 918년 홍유 등이 주동한 정변이 일어나자 ‘國人’들이 그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였으며, 만여 인은 궁문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었다고 한다.⁹⁴⁾ 즉 그들은 반궁예세력이었으며 또한 결코 적은 수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궁예의 정교일치적 전제주의에 반대하였던 여러 세력이 정변을 계기로 그들의 힘을 결집시켜 정변이 성공할 수 있었던 셈이었다. 하지만 이로써 태봉이 몰락하게 된 원인이 모두 설명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궁예의 정교일치적 전제주의를 지지하는 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궁예가 별 저항도 하지 못하고 무너졌던 것은 왜일까 하는 의문이 남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918년 정변에 참여하였던 인물들에 관해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하다.

1등공신으로 포상을 받은 홍유 등은 정변의 주모자였다. 그들 이외에 왕건을 추대한 공으로 馬軍將軍이 되었고, 그의 신임을 얻어 그의 경호를 담당하였던 桓宣吉도 역시 그러하였을 것이다. 단 그는 모반을 꾀하다가 죽었으므로 1등공신에서 빠졌을 것이다.⁹⁵⁾ 다음 2등공신으로는 堅權 등 7인이 있다. 환선길의 동생 香寔도 이들에 준하여 볼 수 있다. 이들은 적극 가담자였다고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주모자들과 적극 가담자에 관해 정리한 것이 다음 <표 3>과 <표 4>이다.⁹⁶⁾

93) 《高麗史節要》 권 1, 태조 즉위전.

94) 위와 같음.

95) 환선길과 그의 동생 향식에 대해서는 《高麗史》 127, 列傳 40, 桓宣吉傳 참조.

96) <표 3>과 <표 4>는 《三國史記》 권 11, 新羅本紀 11, 敬明왕 · 권 50, 列傳 10, 弓

〈표 3〉 918년 政變의 主謀者

	政變 以前の 經歷	政變 直後の 官職(階)
洪 儒	義城府人, 弓裔末年 騎將 將軍	太祖 元年 大相 元年 7月 馬軍將軍
裴玄慶	慶州人, 膽力過人 起行伍 弓裔末年 騎將 將軍	太祖 元年 7月 馬軍將軍
申崇謙	光海州人, 長大 有武勇 弓裔末年 騎將 將軍	太祖 元年 9月 馬軍將軍
卜智謙	沔川人, 弓裔末年 騎將 將軍	太祖 元年 9月 馬軍將軍
桓宣吉	才力過人 士卒服從	太祖 元年 馬軍將軍

〈표 4〉 918년 政變의 적극 加担者

人 名	政 變 後 의 活 動 狀 況
堅 權	921년 騎兵을 이끌고 達姑狄 격파
能 寔	태조 원년 7월 壬申 廣評郎中에서 佉軍郎中으로 轉職
權 愼	
廉 湘	태조 원년 6월 庚申 馬軍大將軍
金 樂	태조 10년(927) 7월 戊午 元甫, 9월 大將
連 珠	태조 19년(936) 9월 元甫로 馬軍지휘

〈표 3〉을 보면 환선길을 제외한 홍유 등 주모자들은 정변 당시 騎將 혹은 장군이었으며, 정변 후에는 모두 마군장군이였다. 정변 당시 그들은 마군의 지휘관이었으리라고 여겨진다. 환선길이 정변 후 마군장군이 되었음을 보면 그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표 4〉에 나오는 견권 등 2등공신들은, 능식을 제외하면, 정변 당시 대체로 무신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정변 후의 일이지는 하지만 그들 중 廉湘은 林春吉 모반사건을 처리할 때 마군대장군으로 나오므로 이전부터 마군을 지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견권이나 연주가 기병과 마군을 이끌고 전투에 참여하였던 사실로 미루어 보면 이들도

裔 및 《高麗史》世家·列傳 및 《高麗史節要》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일찍부터 마군과 연관을 맺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상과 같이 정변의 주도자들이나 적극 가담자들은 대부분 마군의 지휘관들이었거나 그와 연관을 맺고 있었다.⁹⁷⁾

한편 배현경은 남보다 뛰어난 담력으로 인하여 행오에서부터 입신하였다. 그는 군인으로서의 자질을 기초로 하여 일반 병졸에서 기장(장군)으로까지 출세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전문적인 군인 출신이었다. 그리고 배현경의 예로 미루어 볼 때 신승겸도 장대한 신체적 조건과 무용을 활용하여 기장에 이르렀던 전문적인 군인 출신이었을 것이다. 환선길도 남보다 뛰어난 「재력」을 바탕으로 출세하였던 전문적인 군인 출신이었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 세 사람의 경우에 비추어 홍유와 복지겸도 마찬가지로였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뿐만 아니라 적극 가담자들의 대부분이 마군과 관련을 맺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들을 주모자들과 같은 전문적인 군인 출신이었다고 보아도 괜찮을 듯하다.⁹⁸⁾

그런데 마군은 전투부대 중 핵심적인 부대였다. 그리고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문적인 군인출신들은 궁예의 정교일치적 전제주의를 지지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홍유를 비롯한 정변의 주모자들이나 적극 가담자들도 본래는 궁예의 지지세력이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서 이제 궁예가 정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였던 까닭이 어느 정도 드러나지 않았는가 한다. 즉 이전에는 그의 지지세력이었던 전문적인 군인출신들의 일부가 등을 돌림으로써 궁예로서는 정변을 예방하거나 그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이들과 함께 궁예의 정교일치적 전제주의를 지지하였던 것으로 파악되는 청주세력의 동향이다.

사실 청주출신이라고 하여 한결같이 궁예를 지지하였던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청주세력 내의 여러 세력 사이의 이해관계에 따라 청주세력

97) 鄭淸柱, 《新羅末・高麗初 豪族研究》(全北大 博士學位論文, 1991), 144~152쪽에서도 이러한 견해를 찾을 수 있다.

98) 정변을 주도한 자들이 대체로 호족적 배경을 지니고 있지 않았음은 이미 河炫綱이 언급한 바가 있으며(河炫綱, 앞의 글, 31~32쪽), 鄭淸柱도 비슷한 견해를 내놓았다(鄭淸柱, 위의 글, 145~50쪽).

의 분열이 가속화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가령 청주인 아지태는 궁예에게 기대어 같은 청주인이었던 笏全 등을 제거하려고 하였다. 그로 인해 여러 해 동안 곤경에 빠져 있었던 입전 등은 시중 왕건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고 한다. 아지태의 참소사건을 계기로 입전 등은 반궁예적인 성향을 갖게 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⁹⁹⁾ 또 청주인의 반란을 우려한 궁예가 尹全 등 군인 80여 인을 처벌하였던 일도 있다.¹⁰⁰⁾ 윤진 등은 청주출신으로서 그들은 반궁예적인 성향의 인물이었음직하다. 왕건이 즉위한 후의 일이지만 淸州領軍將軍 堅金이 金勤謙·寬駿·金言規 등 재경청주인들을 제거할 것을 요청하자 태조는 그들이 918년 정변에서 자신을 도와 활약하였음을 들어 거절하였던 사실이 있다.¹⁰¹⁾ 이상의 몇 예에서 궁예의 정교일치적 전제주의를 지지하였던 청주세력의 일부도 반궁예세력으로 돌아섰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적인 군인 출신들 일부에 더하여 청주세력의 일부가 궁예에게 등을 돌림으로써 궁예는 정변을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믿어지는 것이다.¹⁰²⁾

〈趙仁成〉

99) 金周成, 〈高麗初 淸州地方의 豪族〉(《韓國史研究》 61·62, 1988), 166~172쪽 참조.

100) 《高麗史》 권 1, 世家 1, 태조 원년 6월 무오.

101) 《高麗史》 권 92, 列傳 5, 王順式 附 堅金.

102) 洪承基는 918년 정변이 기본적으로 친위쿠데타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洪承基, 〈高麗 太祖 王建의 執權〉, 《震檀學報》 71·72, 1991).